

# 비영어권 국가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사례 조사

2013. 9. 25.



# contents



Chapter 01	<b>I. 개요</b>	03
Chapter 02	<b>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b>	05
	1. 세계 음반시장 규모 및 동향	05
	2. 2012년 미국 음반시장 현황	07
	3. 2012년 영국 음반시장 현황	08
	4. 영미권 음악시장의 의미	09
Chapter 03	<b>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b>	12
	1. 아시아권 뮤지션	12
	2. 아프리카권 뮤지션	37
	3. 유럽권 뮤지션	61
	4. 남미권 뮤지션	89

---

**작 성 : 대중음악SOUND연구소**

박준흠(연구소장,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홍정택(연구원), 이수정(연구원)

진 행 :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중구 주임연구원, 이은지 인턴

디자인 : Design 인

---

# 01 Chapter



## I. 개요

### 1. 작성 취지

- K-POP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미권 음악시장에서 수익을 거둬들여야 함
- 한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비영어권 국가 뮤지션들의 영미권 음악시장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K-POP의 영미권 진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것임

### 2. 조사 범위

- 1960년대 이래 영미권에서 인기를 얻은 비영어권 국가의 뮤지션 연구
  - 주로 1960년대(LP 음악시장과 아티스트/작품 시장의 본격화) 이래 비영어권 국가 뮤지션들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에서 '성공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함
  - 단, 자국에서 먼저 데뷔하고 해외로 진출한 경우만 조사 범위에 넣음
- 비영어권 국가의 범위
  - 비영어권 국가 범위를 크게 4개 카테고리(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유럽권, 남미권)로 나눠서 조사함
  - 각 권역별로 10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함

### 3. 성공사례 기준

- 미국 빌보드차트 진입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음
  - 빌보드 핫 100 내에 진입된 곡이 한 곡 이상인 경우
  - 빌보드 200 내에 진입된 앨범이 한 장 이상인 경우

# 01 Chapter



- 그래미상 수상 등을 기준으로 삼음
  - 그래미 등에서 상을 받은 경우는 상업성과 함께 예술성을 인정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공사례로 봄
- 빌보드차트, 그래미는 좀 더 '표준적'이고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임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 02 Chapter



##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1. 세계 음반시장<sup>1)</sup> 규모 및 동향

- IFPI(2013)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음반시장의 규모는 165억 달러로 2011년 대비 0.2% 상승함
  - 분야별로 살펴보면, 음반 판매(physical sales)는 2011년 8.7% 하락에 이어 2012년에도 5.0% 하락하며 9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2012년 디지털 음원 판매(digital sales)는 2011년 54억 달러에서 8.0% 성장한 58억 달러를 기록함. 실연권(performance rights) 수익은 9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전년 대비 9.4% 성장하였음

〈표 1〉 세계 음반시장의 분야별 규모 (2011~2012)

구분	2011		2012		2011~2012 증감율
	금액 (백만 달러)	비중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음반(CD, LP, TAPE)	9,893	60.1%	9,403	57.1%	-5.0%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5,371	32.6%	5,798	35.2%	+8.0%
실연권	862	5.2%	943	5.7%	+9.4%
배경음원	330	2.0%	337	2.0%	+2.1%
합계	16,456	100%	16,481	100%	+0.2%

※ 위 수치는 최종 소비자의 지출액(Retail Value)이 아닌 기업간 매출액(Trade Value)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1) 여기서 '음반시장'은 소매 매출액이 아닌 음반 회사와 유통망 사이에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더불어 여기에는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등 라이브 음악 산업의 매출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악시장' 규모와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해야 함. PWC(2013)에 의하면 2012년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의 매출액은 '음반시장' 매출액보다 13%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265억 달러, 음반시장: 234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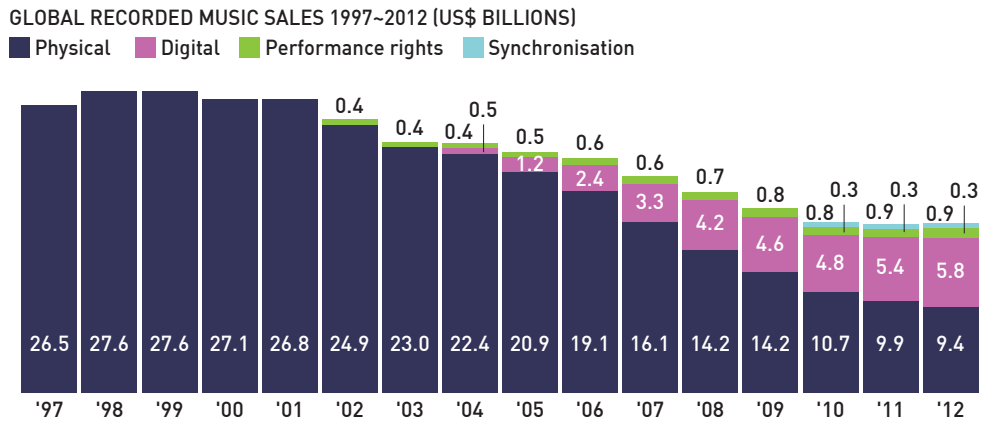
# 02 Chapter



- 세계 음반시장의 규모는 2000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세를 지속하여 왔으나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와 함께 2010년 이후 보합세를 보임

[그림 1] 세계 음반시장의 분야별 규모 추이 (1997~2012)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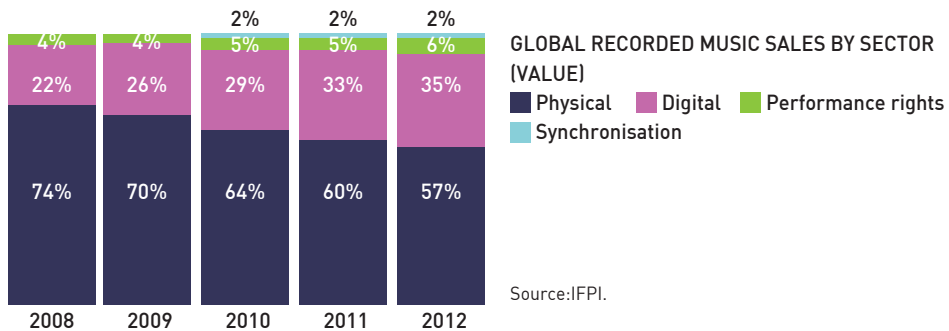


Source:IFPI.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 음반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2008년 음반시장의 22%를 차지했던 디지털 음원의 비중은 매년 빠르게 상승하며 2012년에는 35%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음반(CD, LP, 테이프) 판매의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2년 57%로 지속 하락하고 있음

[그림 2] 세계 음반시장의 분야별 비중 추이



Source:IFPI.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 02 Chapter



## 2. 2012년 미국 음반시장 현황

- 2012년 미국의 전체 음반시장 규모는 44억 8,180만 달러로 독보적인 세계 1위 (27.2%)를 유지하고 있음. 부문별 규모에서도 앨범(CD) 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모두(디지털 음원, 실연권, 배경음원)에서 1위를 기록함
- 미국의 앨범(CD) 판매 규모는 2011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으나, 디지털 음원과 실연권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감소분이 만회됨(전년 대비 -0.5%)
- 특히, iTunes를 비롯하여, Google Play와 Xbox music, Amazon 등의 서비스가 미국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에 기여함. 이들 서비스에서의 음악 다운로드 매출은 디지털 음원 시장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함

〈표 2〉 미국 음반시장 매출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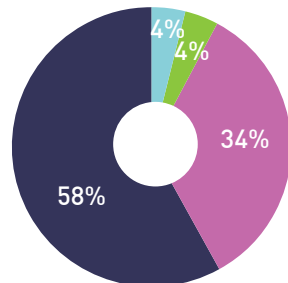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앨범(CD)	디지털 음원	실연권	배경음원	합계	증감율
2012	1,531.5	2,598.2	161.2	191.0	4,481.8	-0.5%
2011	1,841.7	2,344.7	130.9	187.8	4,505.1	+2.9%
2010	2,076.4	2,029.3	89.7	181.4	4,376.9	-5.4%
2009	2,553.9	2,005.1	70.2		4,629.1	-10.8%
2008	3,143.1	1,991.2	54.8		5,189.2	-15.1%

※ 위 수치는 최종 소비자의 지출액(Retail Value)이 아닌 기업간 매출액(Trade Value)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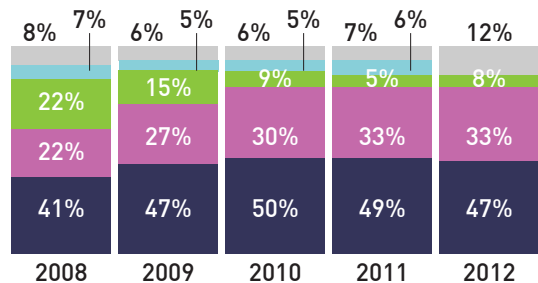
〔그림 3〕 분야별 음원 매출 비중(미국)



RECORDED MUSIC SALES BY SECTOR 2012(VALUE)

■ Digital ■ Physical ■ Performance rights ■ Synch

〔그림 4〕 디지털 음원 형태별 매출 비중(미국)



DIGITAL SALES BY FORMAT (VALUE)

■ Single track ■ Full album ■ Mobile ■ Subscriptions ■ Other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 02 Chapter



## 3. 2012년 영국 음반시장 현황

- 영국의 음반시장 규모는 13억 2,580만 달러(2012년 기준)로,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8.0%)에 오름. 이는 2012년의 유로화 약세와 여왕즉위 60주년 행사, 그리고 런던올림픽 등의 영향으로 평가됨
- 지난해 세계 음반 판매 TOP10 가운데 절반은 영국 뮤지션의 앨범일 정도로, 영국 뮤지션의 활약이 대단함. 특히 아델(Adele)의 앨범 '21'은 2년에 걸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 그녀의 앨범은 2011년에 1800만장, 2012년에는 830만장이 팔렸고, 세계 차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 이는 IFPI가 음반판매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임

〈표 3〉 영국 음반시장 매출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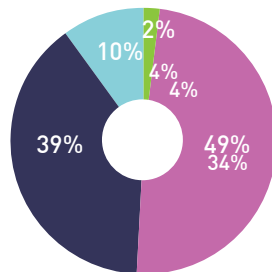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앨범(CD)	디지털 음원	실연권	배경음원	합계	증감율
2012	645.5	523.0	128.4	28.9	1,325.8	-6.1%
2011	815.5	447.8	114.0	34.4	1,411.8	-3.1%
2010	949.2	358.4	114.6	34.3	1,456.6	-8.9%
2009	1,174.6	299.7	124.5		1,598.8	+1.9%
2008	1,250.4	203.0	115.2		1,568.6	-3.5%

※ 위 수치는 최종 소비자의 지출액(Retail Value)이 아닌 기업간 매출액(Trade Value)를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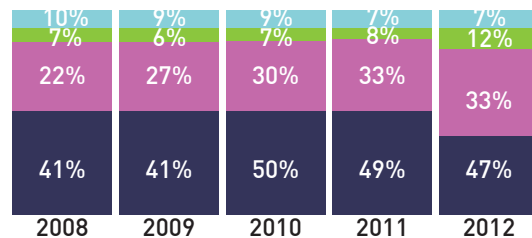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그림 5] 분야별 음원 매출 비중(영국)



RECORDED MUSIC SALES BY SECTOR 2012(VALUE)  
 ■ Digital ■ Physical ■ Performance rights ■ Synch

[그림 6] 디지털 음원 형태별 매출 비중(영국)



DIGITAL SALES BY FORMAT (VALUE)  
 ■ Single track ■ Full album ■ Subscriptions ■ Other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 02 Chapter



## 4. 영미권 음악시장의 의미

- 전세계 음반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시장의 비중은 매우 큰 편임. 두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35.2%에 이룸
  - 미국 44억8180만 달러(점유율 27.2%), 영국 13억2580만 달러(점유율 8.0%)

〈표 4〉 글로벌 음반시장 규모 Top 20

2012년 세계 음반시장 상위 20개국의 매출 및 분야별 비중							
순위	국가명	시장 규모(trade value)		분야별 비중			
		백만달러(\$)	증감율(%)	음반(%)	디지털음악 (%)	실연권(%)	배경음원 (%)
1	미국	4,481.8	-0.5	34	58	4	4
2	일본	4,422.0	4.0	80	17	2	1
3	영국	1,325.8	-6.1	49	39	10	2
4	독일	1,297.9	-4.6	75	19	5	1
5	프랑스	907.6	-2.9	64	23	11	2
6	호주	507.4	6.8	45	47	6	2
7	캐나다	453.5	5.8	48	43	7	2
8	브라질	257.2	8.9	62	27	9	2
9	이탈리아	217.5	-1.8	62	27	9	2
10	네덜란드	216.3	-4.7	58	27	14	1
11	대한민국	187.5	-4.3	55	43	2	
12	스웨덴	176.7	18.7	32	59	8	1
13	스페인	166.6	-5.0	53	27	19	1
14	인도	146.7	21.6	31	60	7	2
15	멕시코	144.5	8.2	63	35	1	1
16	스위스	128.5	-14.2	61	32	7	
17	벨기에	121.5	-6.3	64	18	17	
18	노르웨이	118.3	6.7	31	57	11	1
19	오스트리아	96.2	-12.4	65	21	13	1
20	중국	92.4	9.0	18	82		
<b>전세계</b>		<b>16,480.6</b>	<b>0.2</b>	<b>57</b>	<b>35</b>	<b>6</b>	<b>2</b>

※ 출처: IFPI (2013), 『Recording Industry in Numbers 2013』

# 02 Chapter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분야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음. 특히 미국은 싱글과 앨범 다운로드 시장에서 세계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보임.

- 2012년 미국의 싱글트랙 다운로드 횟수는 13억 3,600만 건으로 세계 시장의 58.2%, 앨범 다운로드 횟수는 1억 1,770만 건으로 세계시장의 56.0%에 달함

〈표 5〉 주요 국가별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건수

(단위: 백만 건)

순위	구분	싱글트랙			앨범		
		국가	2011	2012	증감율	2011	2012
1	미국	1,270.0	1,336.0	+5%	103.1	117.7	+14%
2	영국	176.2	187.8	+7%	26.6	30.5	+15%
3	독일	79.0	97.1	+23%	14.6	17.5	+20%
4	호주	78.4	138.0	+76%	6.0	8.5	+42%
5	캐나다	94.2	114.3	+21%	8.3	10.5	+26%
전세계		2,136.4	2,297.2	+8%	181.5	210.1	+16%

※출처 : Nielsen SoundScan, Official Chart Company, Music Control, ARIA, Nielsen SoundScan Canada, IFPI

- 영국과 미국은 특히 음악 공연 분야에서 강세를 보임.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음반 판매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은 여기서 전체 매출의 48.8%를 점유하고 있음<sup>2)</sup>

2) PWC(2013)에 의하면 2012년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시장은 265억 달러, '음반시장'은 234억 달러로 추정됨. 한편 '음반시장'에 대한 PWC의 추정 매출액은 IFPI의 집계와는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PWC가 최종 소비자에게서 발생한 매출액(Retail Value)을 집계하는 반면, IFPI는 기업간의 거래액(Trade Value)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임

# 02 Chapter



〈표 6〉 미국/영국의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p	세계시장 대비 비중 (2012년)
미국	8,150	8,631	8,039	8,441	8,611	32.5%
영국	2,401	2,534	2,380	2,415	2,434	16.3%
합계	10,551	11,165	10,419	10,856	11,045	48.8%
전세계	24,973	26,099	25,200	25,966	26,528	100.0%

※출처 : PWC(2013),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3-2017』

- 이와 같이 영미권 국가는 음반시장의 규모도 크지만 콘서트 및 음악 페스티벌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메인 아티스트로 전국 투어를 진행했을 때 일본시장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들 국가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음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영미권 차트 자체가 전세계 음악 수요자들에게 청취 음악 선별의 기준점이 됨. 따라서 영미권 음악 시장으로의 성공적으로 진출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 파급 효과 역시 매우 크다는 의미가 있음



# 03 Chapter



##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 1. 아시아권 뮤지션

-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의 빌보드 차트 진입은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 큐(坂本九, Kyu Sakamoto)의 'Sukiyaki'를 통해 이루어짐
  - 원제목인 '위를 향해 걷자(上を向いて歩こう)'를 음식 이름으로 바꿔 현지화한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Hot 100에서 3주간 1위를 차지함 ('Sukiyaki'는 지금까지도 아시아 아티스트의 유일한 빌보드 Hot 100 1위 싱글임)
- 'Sukiyaki'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아시아 아티스트의 영미권 진출은 1) 록, 댄스, OST 등 장르 특화된 음악을 통한 접근, 2) 월드 뮤직 평단에서의 성과 확보 후 시장 진출, 3) 미국 내에서의 육성, 발굴 혹은 협업 프로세스를 거친 현지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장르 특화된 음악을 통한 접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일본 아티스트들임
  - 록 서브 차트에서의 성과를 통해 세 장의 정규 앨범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Top 200에 올려놓은 일본 밴드 라우드니스(Loudness)나 뛰어난 연주력, 차별화된 컨셉으로 주목 받은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Yellow Magic Orchestra), 독특한 컨셉의 원 히트 원더(One Hit Wonder) 디스코 음악 'Kiss in the dark'를 남긴 핑크 레이디(Pink Lady) 등이 그 예임
  - 이들의 활약은 주로 1980~90년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디르 앙 그레이(Dir en Grey)가 두 장의 정규 앨범을 Top 200위권 안에 올려놓는 등 간헐적으로 이를 이어가고 있음
- 인도의 유명 영화음악감독인 A.R.라만(A.R.Rahman)의 경우 아카데미 작품상 및 음악상, 주제가상 등 총 8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Slumdog Millionaire)]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성과를 남기기도 함

# 03

## Chapter



- 월드 뮤직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통한 접근은 1995년까지 총 5장의 정규 앨범을 Top 200에 올린 일본의 기타로(Kitaro), [Go] 연작으로 주목 받은 스토무 야마시타 (Stomu Yamashta) 등 일본 음악가들과 함께 비틀즈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라비 샹카(Ravi Shankar) 등의 인도 아티스트, 오리엔탈 무드의 음악으로 서양인들의 ‘동양적인 무엇’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 티벳 뮤지션들, 사딩딩(Sa Dingding)이나 중국 전통 악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자극했던 여자 12악방(12 Girls Band) 등이 있음
  - 이런 음악들의 경우 월드 뮤직 차트나 평단에서의 성과가 항상 메인 차트로의 성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영미권 아티스트와의 협업이 수반되는 경우 차트에서의 성공 경향이 두드러짐
- 특정 장르로 소개하기 애매한 커리어를 지니고 있지만, 오노 요코(Ono Yoko) 또한 차트나 수상 등의 성과는 주로 존 레논(John Lennon)과 함께 했던 작업들에서 달성함
- 마츠다 세이코 또한 당시 인기 아이돌이었던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도니 월버그 (Donnie Wahlberg)와 함께 한 ‘Right Combination’을 통해 빌보드 Hot 100 54위의 성과를 이룬 바 있음
- 현지화된 콘텐츠를 통한 접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필리핀 아티스트 들임
  - 이들은 국가적으로 영어를 사용해 언어로 인한 이슈가 적고, 현지에 주둔한 미군을 통해 영미권 문화를 가까이서 접하며 영미권 청자들과 일정 부분 교집합을 갖는 음악 취향(아레나 록, 스탠다드 발라드, R&B 음악 등)을 지니고 있음
  - 멀게는 1960년대 비틀즈의 미국 진출 이전 ‘필리핀 4형제의 로큰롤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던 ‘Killer Joe’의 로키 펠러스(The Rocky Fellers)부터,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히로인으로 데뷔해 주목 받은 레아 살롱가, 자국 및 한국의 [스타킹]을 거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된 후 데이비드 포스터(David Foster)가 제작에 참여, 성공적인 미국 데뷔를 이루어낸 채리스(Charice) 등이 모두 이러한 ‘현지화’를 통해 시장에 진출한 필리핀 아티스트들임

# 03

## Chapter



- 일본 아티스트들 또한 ‘Sukiyaki’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상술한 핑크 레이디의 경우 미국 제작진이 참여한 ‘현지화’ 컨셉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미숙한 영어 가창 및 커뮤니케이션으로 ‘Kiss in the dark’의 이슈 메이킹 정도에 머물러야 했음
- 200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새로운 경향은 기존에 만들어진 자국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유지/강화하는 형태의 진출임
  - 우타다 히카루(Utada Hikaru)나 보아(BoA) 등의 미국 진출은 아티스트의 기존 음악을 유지하면서 장르/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영미 트렌드를 접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더 나아가 소녀시대, 빅뱅 등은 아예 한국어로 된 앨범을 빌보드 Top 200에 올려 놓기도 했는데, 이는 규모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아시아 시장의 위상 및 K-Pop의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사카모토 큐 이후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 싸이(Psy) 또한 최초부터 글로벌 시장 취향을 궁리하기보다는 국내 시장을 목표로 제작한 곡이 전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경우임

# 03 Chapter



## A.R.라만

지역 | 아시아

국가 | 인도

활동 시기 | 1980년대~현재



A.R. Rahman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Jai Ho	싱글	2009	15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Kadal (Soundtrack EP) The Best of Ar Rahman	앨범 앨범	2013 2009	14 12

### 아티스트 소개

A.R.라만은 다수의 발리우드 영화에서 활약한 작곡가 및 음악감독이다. 영화음악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그는 16세에 세션으로 영화음악계에 입문했다. 1989년 자국 커피 브랜드인 Leo Coffee를 위한 광고 음악을 제작하며 창작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영화음악계에 입문한 것은 1992년이였다. 이후 5년 간 35편의 인기 인도 영화에 작곡가 겸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그를 눈 여겨 본 소니 뮤직과 1997년 3개년 계약을 체결하고(이는 인도 음악 작가로서는 최초의 계약이였다) 글로벌 시장에 음악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영화음악이 아닌, 자신의 창작물로 구성된 첫 앨범은 자국민과 교포는 물론 영미권 평단으로부터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앨범 발매 후 수 년에 걸쳐 이루어진 미국/캐나다/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는 자국뿐 아니라 영국 및 미국 영화 감독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게 되었다. 첫 작품은 2007년 인도계인 쉐카 카푸르(Shekhar Kapur)이 감독하고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이 주연한 [엘리자베스: 황금시대 (Elizabeth: The Golden Age)]였다. 이를 통

# 03

## Chapter



해 라만의 음악을 접하게 된 대니 보일(Danny Boyle) 감독이 차기작으로 기획하고 있던 [슬럼 덕 밀리어네어(Slumdog Millionaire)]에 그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해당 영화는 2008년 아카데미 음악상, 주제가상 수상 및 수록곡 'Jai Ho'의 빌보드 Hot 100 15위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영미권에서의 명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도 그는 지속적으로 자국 및 외국의 영화음악 작업을 이어오는 한 편 앨범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또한 병행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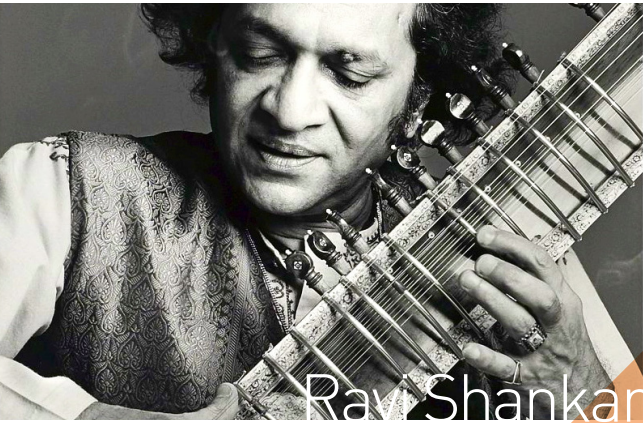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영미권 시장에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한 주요한 배경은 역시 할리우드 영화계 내에서 그가 이룬 성과에 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보여주고 그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할리우드라는 시장은 그가 5년 이상 정상급의 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니 뮤직의 관심을 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소니 뮤직이라는 글로벌 제작/유통/프로모션 역량을 갖춘 파트너의 지원 또한 그의 영미권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소니는 자사가 보유한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그의 음악을 소개했으며, 그룹이 보유한 음악 및 영화 업계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영미권 영화음악감독 진출 또한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영화 콘텐츠의 영향력 또한 라만의 성공을 견인한 주요 요소였다. 이에는 초기 할리우드 영화들과 [슬럼독 밀리어네어] 등의 영미권 히트 영화들이 두루 포함된다.

# 03 Chapter



Ravi Shankar

## 라비 상카

지역 | 아시아

국가 | 인도

활동 시기 | 1960년대~2000년대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Grammy Awards	Concert for Bangladesh	앨범	1972	Album of the Year
Grammy Awards	Full Circle: Carnegie Hall 2000	앨범	2001	Best World Music Album
Billboard 200	Ravi Shankar At The Monterey International Pop Festival	앨범	1968	43
Billboard 200	Ravi Shankar In New York	앨범	1967	148
Billboard 200	Ravi Shankar In San Francisco	앨범	1968	140
Billboard 200	Shankar Family & Friends	앨범	1975	176
Billboard 200	West Meets East	앨범	1967	161

### 아티스트 소개

라비 상카는 1920년 인도의 부유한 브라만 계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14살 되던 해 전통 악기 연주자이자 향후 그의 스승이 될 알라우딘 칸(Allaudin Khan)을 처음 만났으며, 18세부터 본격적으로 그로부터 시타르 및 전통음악을 사사하기 시작했다. 1944년 전통음악가로 데뷔한 이래 인도 전역을 돌며 공연했으며, 영화음악가, 무용음악가, 라디오 음악감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무렵 그는 인도 국내에서의 제한된 활동에만 집중하는 다른 음악가들과 달리 인도 음악을 해외에 전파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1954년에는



# 03

## Chapter



소련, 1956년에는 서유럽에서 성공리에 콘서트를 개최했다. 십여 년 뒤 미국 시장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도 출신 음악인으로서의 명성을 굳힌 뒤였다.

인도 출신 전통 음악인으로 알려졌던 라비 상카가 영미권 대중음악으로 보다 깊숙이 파고든 데에는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두 뮤지션,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과 에릭 클랩튼이 있었다. 이들은 라비 상카의 음악을 자신들의 이후 음악에 접목했으며, 라비 상카와의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그의 이름을 보다 많은 대중이 접하게 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 결과 그는 1967년 이후 1975년까지 총 4장의 공연 실황 앨범을 빌보드 Top 200 안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그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월드 뮤직 차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딸 아누쉬카(Anoushka Shankar)와 함께 한 공연 실황을 담은 2001년작 [Full Circle: Carnegie Hall 2000]은 그 해 그래미 최우수 월드 뮤직 앨범상을 받으며 그의 건재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라비 상카는 영미 대중음악과 인도 전통음악 사이의 다양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탐구한 뮤지션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도의 일부 전통 옹호론자들로부터는 그의 진정성을 비판 받기도 했다. 그러나 비틀즈나 에릭 클랩튼의 음악은 그와의 교류 이후 인도 음악의 코드 전개, 악기 운용, 공명 등의 사운드 방식 등을 채택하면서 라비 상카가 고수한 인도 전통 음악의 요소들은 영미 팝/락 음악에 깊숙이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곧 다시 라비 상카의 기존 음악 및 인도 음악 전체에 대한 영미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라비 상카는 해외 시장에서 다수의 공연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또한 그것을 십여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한 연주자이기도 했다. 기존의 많은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단발적인 공연 및 앨범 발매로 월드 뮤직의 틈새 시장을 노렸던 것과 달리, 라비 상카는 195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자신의 음악을 노출하고 공연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 03 Chapter



## 기타로



Kitaro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80년대~2000년대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An Enchanted Evening	앨범	1995	199
Billboard Top 200	Kojiki	앨범	1990	159
Billboard Top 200	My Best	앨범	1986	141
Billboard Top 200	Peace on Earth	앨범	1996	185
Billboard Top 200	Tenku	앨범	1987	183
Grammy Awards	Thinking of You	앨범	2000	Best New Age Album

### 아티스트 소개

기타로는 본래 고등학교 시절 오티스 레딩(Otis Redding)의 음악을 즐겨 듣는 기타 연주자였으며, 이후 프로그레시브 록을 표방하는 밴드 파 이스트 패밀리 밴드(The Far East Family Band)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2년 유럽 여행 중 독일의 신디사이저 연주자 클라우스 슈츠(Klaus Schulze)를 만난 후, 그의 음악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는 신디사이저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고 왜곡된, 때로는 낯선 소리에 매료되었으며, 곧 이를 자신의 음악 안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실험해 보기 시작했다. 1978년 발매된 그의 첫 솔로 앨범 [Astral Voyage]는 이런 그의 실험이 담겨 있었으며, 뉴에이지 시대의 컬트 팬들을 대상으로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03

## Chapter



기타로의 음악이 본격적으로 영미권 청자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1986년, 그가 게펜(Geffen) 레코드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였다. 이후 미국에서 재발매된 그의 기존 앨범 7장은 현지 평단 및 뉴에이지 팬들로부터 신선한 음악이라는 평가와 함께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듬해 그레이트풀 데드(The Grateful Dead)의 드러머였던 미키 하트(Mickey Hart)와 함께 작업한 [The Light of the Spirit]를 통해 확실한 성공궤도에 오르게 된다. 다수의 미국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 앨범을 통해 기타로는 최초의 전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앨범은 미국 내에서만 200만 장 이상 판매되었으며,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뉴에이지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기타로의 음악은 보다 팝적인 요소나 극적인 구성이 강화되는 형태로 변해갔다. 이는 영미 아티스트들과의 교류, 그리고 미국 진출 이후 연극/뮤지컬 음악 작곡가로서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거친 뒤 보다 정제된 음악적 결과물로 완성된 1999년의 앨범 [Thinking of You]는 이듬해 그래미 최우수 뉴에이지 앨범상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그의 건재함을 증명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일본 출신의, 신디사이저를 다루며 실험적인 음악을 추구하는 뮤지션. 기타로는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붐이 일었던 1980년대 영미 음악인의 청자들이 원하던 이상적인 '이국적 뮤지션'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일본 전통적인 복장과 악기, 멜로디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로 오리엔탈적인 면모를 드러냈으며, 이는 그가 여타의 유사 장르 뮤지션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기타로는 실험적인 첫 인상 밑으로 '록'이라는, 영미권의 청자들에게 익숙한 뚜렷한 장르적 기반을 가진 뮤지션이기도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그의 음악은 보다 록 음악, 더 나아가 팝 음악과도 비견될 만큼 유연한 형태로 변화해 갔는데, 이것이 단순한 변절이나 기존 음악과의 단절로 평가받지 않은 데에는 그의 음악을 관통하는 밴드 음악의 흔적이 큰 역할을 했다.

# 03 Chapter



## 디르 앙 그레이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90년대~현재



Dir en Grey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이시이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Dum Spiro Spero	앨범	2011	135
Billboard Top 200	Uroboros	앨범	2008	114

### 아티스트 소개

디르 앙 그레이는 비주얼 락 세대 이후 일본 음악계는 물론, 영미 락 신에서도 비영미권 밴드로는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밴드 중 하나다.(Allmusic.com은 이들을 램스타인(Rammstein) 이후 가장 성공한, 영어가 아닌 가사를 사용하는 밴드로 거론하기도 했다.) 1997년 결성된 이들의 초반은 여느 비주얼 록 후발 주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데뷔 EP의 초기 반응은 지지부진했으나 이듬해 공개한 'Jealous'와 'I'll'이 각각 오리콘 차트 Top 10에 들며 엑스재팬(X-Japan)의 드러머 겸 프로듀서였던 요시키(Yoshiki)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요시키는 실제로 1999년 이들의 다섯 장의 싱글 앨범에 모두 프로듀서로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흥행은 싱글 모음집 개념으로 발매된 데뷔 앨범 [Gauze] 때까지 이어졌다. 이를 토대로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한 디르 앙 그레이는 두 번째 앨범 [Macabre]부터 본격적으로 인더스트리얼과 하드코어 사운드를 자신들의 음악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 꾸준히 인기를 모으던 디르 앙 그레이는 점점 더 다

# 03

## Chapter



크 메탈/하드코어 사운드를 깊숙이 반영했다. 2002년 발매된 EP [Six Ugly]는 기존 그들의 J-Rock 사운드를 선호하던 일부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이들은 [Vulgar] (2003), [Withering to Death] (2005) 등 헤비니스 음악으로의 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디르 앙 그레이의 이러한 독특한 사운드는 유럽 메탈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정식 발매 없이 [Withering to Death]가 2005년 핀란드 차트 31위로 데뷔하면서 이들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베를린과 파리 등을 중심으로 투어를 마친 후 2005년 유럽, 2006년 미국에서 각각 [Withering to Death]를 정식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밴드의 여섯 번째 정규작 [The Marrow of a Bone]은 2007년 미국과 일본에 동시 발매되었으며, 이들은 데프톤스(The Deftones)의 전미투어에 참여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인기를 차곡차곡 끌어올려갔다. 이후 유럽 투어, 링크인 파크(Linkin Park)와의 일본 합동 공연 등 주로 무대를 통해 활동하던 이들은 이듬해 [Uroboros]를 빌보드 Top 200의 114위에 진입시키며 데뷔 후 첫 빌보드 차트 입성 기록을 세웠다. 현재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유럽-일본을 오가며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으며, 2011년작 [Dum Spiro Spero] 또한 Top 200 안에 들며 (135위) 원 히트 원더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무엇보다도 밴드의 영미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유럽 메탈 팬들이 자발적으로 디르 앙 그레이를 '발견'한 데에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서브 장르로 분화되며 체계화된 유럽 메탈 신에서 '새로운 음악'을 능동적으로 찾아 듣는 소비자였고, 디르 앙 그레이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던 J-Rock과 메탈/코어 사운드의 결합은 이런 팬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이들은 다시 자신들과 유사한 취향을 지닌 미국의 메탈 팬들에게 디르 앙 그레이의 음악을 소개했으며, 이러한 팬덤 사이의 자발적인 전파는 어느 마케팅 캠페인 못지 않은 효과를 발휘했다.

견고한 내수 수요 또한 이들의 성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실제 이들의 음악이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데뷔하고도 근 십여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 동안 이들은 비주얼 락에서 메탈/하드코어로 점진적인 변화를 겪어가며 자신들만의 음악 색깔을 다듬어 갔는데, 찬반 여론이 갈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들의 음악을 오리콘 Top 10에 올려놓은 일본 록 팬덤은 이들의 시도가 과도기적 모험으로 마무리되지 않게끔 이들을 상업적 성과뿐 아니라 인지도, 음악적 변화의 상호 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뒷받침했다.

# 03 Chapter



## 라우드니스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80년대~현재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Hurricane Eyes	앨범	1987	190
Billboard Top 200	Lightning Strikes	앨범	1986	64
Billboard Top 200	Thunder in the East	앨범	1985	74

### 아티스트 소개

라우드니스(Loudness)는 1970년대 중반 기타리스트 아키라 타카사키(Akira Takasaki)와 드러머 무네타카 히구치(Munetaka Higuchi)가 레이지(Lazy)라는 밴드를 만들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밴드의 성과는 신통치 않았고, 이들은 일본의 1세대 메탈 밴드였던 바우와우(Bow Wow)를 벤치마킹해 보컬 미노루 니하라(Minoru Niihara), 베이스 마사요시 야마시타(Masayoshi Yamashita)를 영입해 진용을 갖추고 팀 이름을 라우드니스로 바꿨다.

이들의 음악은 에디 반 헤일런(Eddie Van Halen)을 연상시키는 아키라의 기타 연주로 유명해졌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들은 세 장의 일본어 정규앨범을 통해 자국 시장에서 정상급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이후 발매된 라이브 앨범 [Live-Loud-Alive], 네 번째 정규작 [Disillusion]은 일본 시장을 넘어 미국 락 신의 관심까지 끌게 되었는데, [Disillusion]의 경우 미국 팬들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미국반이 별도로 발매될 정도였다. 이에 애틀란틱(Atlantic) 레코드가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들은 1985년, 공식적인 미국 진출작인 [Thunder in the East]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뮤지션



# 03

## Chapter



를 발매했다. 앨범에 대한 반응은 준수한 편이었다. 빌보드 Top 200 차트에서 74위에 올랐으며 적잖은 미국 락 팬들이 이들의 음악에 호기심을 보였다.

이후 애틀란틱도, 라우드니스도 적극적으로 후속 히트 앨범 작업을 이어갔다. 이듬해 발매된 [Lightning Strike]는 64위는 선방했지만, 역시 한 해 건너 발매된 [Hurricane Eyes]는 190위에 그치면서 이들의 인기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팀은 보컬을 교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화된 팝락 음악을 선보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체 반등하지 못했다. 이후로도 잿은 멤버 교체를 겪으며 이들은 1999년 [Engine]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앨범 활동을 이어갔지만, [Thunder in the East]의 흥행은 재현되지 못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라우드니스에 대한 미국 시장의 첫 반응은 간단했다. 동양에서 온 밴드가 반 헤일런을 연상시키는 연주를 선보인다는 것. 이 사실에 많은 이들이 라우드니스의 음악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꼭 후속작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라우드니스의 인상적인 첫 등장, 그리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후속 성과 간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다. 팀은 더욱 자신들을 '미국적인' 무언가로 융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영미권 멤버를 영입하고, 당시 시장에서 선호되던 팝적인 멜로디를 부각시켰지만 이는 오히려 라우드니스를 당시 명멸하던 수많은 팝메탈 밴드 중 하나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록 밴드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입성한 라우드니스는, 하지만 이후 '아시아 록 밴드'로서의 정체성을 흐림으로써 시장의 점진적인 외면을 받았다.

# 03 Chapter



Sakamoto Kyu

## 사카모토 큐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60년대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上を向いて歩こ(Sukiyaki)	싱글	1963	1 (3주)
Billboard Hot 100	支那の夜 (China Nights)	싱글	1963	58
Billboard Top 200	Sukiyaki and Other Japanese Hits	앨범	1963	14
미국 내 판매량	Sukiyaki and Other Japanese Hits	앨범	1963	100만장 이상

### 아티스트 소개

1941년 카와사키에서 식당 주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카모토 큐는 10대 시절부터 동네 재즈 클럽에서 공연하며 실력을 쌓았으며, 1959년 도시바(Toshiba) 레코드와 계약하고 몇 장의 싱글을 발표하며 자국 내에서 일정 수준의 인기를 구축했다. 1961년, 그는 '위를 향해 걸자(上を向いて歩こう)'라는 노래를 녹음하게 된다. 당시의 고전적인 엔카와는 사뭇 다른 애상이 감도는 노래였는데, 그는 이 노래를 독특한 음색과 끝을 흐리는 듯한 발음으로 불러 곡에 이국적인 무드를 만들어냈다. (당시 그의 얼버무리는 듯한 가사 발음에 작사가였던 에이 로크스케는 꽤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도 한다.) 이 노래는 일본 시장에서도 큰 히트를 기록했지만, 더 큰 성과는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Hot 100에서 나왔다.



# 03 Chapter



1961년 사업차 일본을 방문한 영국 파이(Pye) 레코드사의 루이스 벤자민(Louis Benjamin)은 자신의 단골 일본 식당에서 사카모토 큐의 '위를 향해 건자'를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이 노래를 자국의 재즈 뮤지션에게 리메이크하게 했는데, 당시 자신이 노래를 들었던 식당의 이름을 따서 리메이크곡의 이름을 'Sukiyaki'라고 지었다 한다. 이렇듯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바뀌어 소개된 이 노래는 영국 차트에서 Top 10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다. 곧이어 미국 라디오 쇼를 통해 이 노래의 원곡인 사카모토 큐의 버전이 소개되었고, 청자들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인해 매일같이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왔다. 곡의 상업적 성공을 확신한 캐피톨(Capitol) 레코드사는 1963년 'Sukiyaki'의 미국 유통권을 샀다. 이후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지면서, 'Sukiyaki'는 기어이 1963년 5월 빌보드 Hot 100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 'Sukiyaki'는 이후로도 총 3주간을 정상의 자리에 머물렀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아시아 가수로서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2012년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 같은 차트의 2위까지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정상'을 차지한 노래는 'Sukiyaki'가 유일하다.)

'Sukiyaki'의 인기로 힘입어 재빨리 공개된 후속 싱글 'China Nights'은, 비록 이전 곡만큼의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Hot 100 58위에 오르며 당시 사카모토 큐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캐피톨 레코드는 이후에도 몇 장의 싱글을 더 발매했지만 대부분은 조금한 기획과 'Sukiyaki'를 벤치마킹하는 홍보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Sukiyaki'가 수록된 그의 유일한 미국 정규앨범 [Sukiyaki and Other Japanese Hits]는 미국 내에서만 100만 장 이상 판매되며 골드 디스크 인증을 받았으며,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도 14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Sukiyaki'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China Nights'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활동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의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유창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기도 하고, 일견 그의 주된 시장이 여전히 자국, 일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그는 4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Sukiyaki'가 미국 시장에 소개된 이후 정상에 오르기까지, 정확한 분석은 없었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자국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언급했다. 1961년 당시는 지금과 비교해 매체를 통한 음악의 전파 속도나 반응이 상대적으로 느린 시절이었지만, 'Sukiyaki'는 빠른 속도로 미국 주요 도시에 전파되었다. 일본인들의 홍보 노력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바로 이 시기, 고도 성장기에 해외 수출의 판로를 뚫기 위해, 이민을 위해 미국에 진출한 많은 일본인들이

# 03

## Chapter



‘Sukiyaki’를 통해 위안을 얻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한다.

노래 자체가 가진 묘한 매력도 ‘Sukiyaki’의 히트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기존 엔카와는 다른 곡의 묘한 애상감은 일견 미국의 컨트리 음악과 정서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있었으며, 일본어 가창이었음에도 발음을 얼버무리거나 독특한 창법으로 곡을 소화하는 등의 장치로 인해 ‘Sukiyaki’는 동시대 다른 일본 노래 대비 언어/문화 차이로 인한 이질감이 적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무지선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무지선

# 03 Chapter



##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80년대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Computer Game	싱글	1980	60
Billboard Top 200	Xoo Multiples	앨범	1980	177
Billboard Top 200	Yellow Magic Orchestra	앨범	1980	81

### 아티스트 소개

신디사이저, 드럼 머신, 시퀀서를 사용한 혁신적인 테크노 팝 사운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Yellow Magic Orchestra)는 현재의 일렉트로닉 음악에 있어 크라프트베르크(Kraftwerk) 못지 않은 영향을 끼친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는 1978년, 당시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던 류이치 사카모토(Ryuichi Sakamoto)와, 역시 솔로 작업을 준비 중이던 새디스틱 미카 밴드(The Sadistic Mika Band)의 드러머 유키히로 타카하시(Yukihiko Takahashi), 그리고 이미 네 장의 솔로 앨범 및 여러 앨범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베이시스트 하루오미 호소노(Haruomi Hosono)에 의해 결성되었다. 결성연도에 공개된 데뷔 음반 [Yellow Magic Orchestra]는 아직 크라프트베르크의 영향 범위 안에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불호가 갈렸다.

그러나 이듬해 공개된 [Solid State Survivor]부터 이들은 독창적인 전자 악기 운용, 멜로디를 강조하는 작곡과 크리스 모스델(Chris Mosdell)에 의해 매끈하게 다듬어진 영어 가사 등을 통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뮤지션

# 03

## Chapter



해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 평가는 곧 일본 시장 밖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1980년에는 신보 [Xoo Multiple]과 함께 그들의 데뷔 앨범 [Yellow Magic Orchestra]가 동시에 미국 시장에 소개되었고, 두 장 모두 빌보드 Top 200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Yellow Magic Orchestra]의 머릿곡이었던 'Computer Game'은 신스팝의 유행이 한창이던 당시 게임음악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스타일로 싱글 차트에서도 60위를 기록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는 영미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끄는 트렌드에 차별화된 음악적 포지셔닝을 더해 차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팀이었다. 이들은 당시 유행하던 전자음악, 신스팝 등의 트렌드를 팀의 음악 안에 적극 수용했으나, 단순한 차용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입장을 살리는 방안 또한 함께 골몰했다. 그 결과 이들은 히트 싱글 'Computer Game'과 초기 네 장의 정규 앨범을 통해 동시대 여느 밴드와도 다른 자신들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자국 내에서 실력과 창작 역량이 일정 부분 검증된 이들의 프로젝트였던 점 또한 이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는 뉴에이지, 월드뮤직 등의 구호 아래 많은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신선한 첫 인상'을 어필하던 시기였는데, 짧은 관심을 끌 수는 있었으나 이것을 지속해나갈 창작 및 연주 등 작가로서의 음악적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옐로 매직 오케스트라는 데뷔 앨범 발매 후 청자들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변화해가는 디스코그래피를 보여주었다.

# 03 Chapter



## 오노 요코



Ono Yoko

지역 | 아시아

국가 | 일본

활동 시기 | 1960년대~현재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Walking on thin ice	싱글	1981	58
Billboard Top 200	Approximately Infinite Universe	앨범	1973	193
Billboard Top 200	Double Fantasy (with John Lennon)	앨범	1980	1
Billboard Top 200	Fly	앨범	1971	199
Billboard Top 200	It's Alright (I See Rainbows)	앨범	1983	98
Billboard Top 200	Season of Glass	앨범	1981	49
Billboard Top 200	Yoko One/Plastic Ono Band	앨범	1971	182
Grammy Awards	Double Fantasy (with John Lennon)	앨범	1980	Album of the Year

III. 비영리권 무지선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무지선

### 아티스트 소개

절대적인 차트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아시아계 아티스트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이는 단연 오노 요코(Ono Yoko)다. 그러나 그녀의 다른 모든 영역이 그렇듯, 대중음악에 있어서도 그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분분하다.

오노 요코는 1933년 일본 부호의 딸로 태어나 2살 되던 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으나, 곧 미-일 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명문학교인 가쿠슈인에서 피아

# 03

## Chapter



노와 보컬 강습을 받았으나 1940년대 전쟁 및 원폭 투하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며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유년기를 보냈다.

1952년 그녀의 가족은 뉴욕으로 이주했고, 그녀는 그 곳에서 다양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멀티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음악은 회화, 행위예술, 설치물 등 그녀의 다른 작품/퍼포먼스와 어우러지는 부수적인 요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미국 대중음악계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66년, 비틀즈의 존 레논(John Lennon)과 만나면서부터였다. 존 레논은 그녀의 작업에 깊이 감명을 받고 그녀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는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어졌다. 둘의 첫 음악적 협업은 1968년 [Unfinished Music, No. 1: Two Virgins]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시 두 커플의 누드 사진을 담은 충격적인 앨범 커버가 논란이 되었었다. 이 무렵 그녀는 남편이었던 재즈 뮤지션 겸 영화 프로듀서 안토니 콕스(Anthony Cox)와 결별하게 되는데, 두 사람 간의 양육권 분쟁에서 콕스가 존과 오노의 악물 복용 등을 폭로하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이들은 일련의 실험적인 음악적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으며, 반전 시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존 레논을 비틀즈의 일원으로 알고, 그러한 행보를 기대했던 기존의 팬들은 오노와 만난 뒤의 그의 행보를 탐탁지 않아 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오노 요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엇갈리는 찬반 속에서도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존 레논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작업한 앨범들은 꾸준히 빌보드 앨범 차트에 올랐다.

1975년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션이 태어나고, 존 레논은 전업주부가 되면서 한 동안 두 사람의 음악적 협업 또한 잠잠해졌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존 레논은 다시 오노와 함께 1980년, [Double Fantasy]라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같은 해 12월 존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이 앨범은 그의 유작이 되었고, 온갖 화제와 함께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면서 그녀의 첫 빌보드 1위 앨범이 되었다. 존의 사망 이후 그녀는 보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Season of Glass], [It's Alright(I See Rainbow)] 등을 공개했으며, 이 작업들은 존 레논 사후의 화제성과 함께 각각 앨범 차트에서 49위, 98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아시아 아티스트가 자국 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영미권에 진출하려는 경우, 오노 요코는 음악 콘텐츠보다는 그것을 전달하는 아티스트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한 가지 독특한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노 요코는 그녀의 인생 자체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행위 예술, 조형, 회화,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멀티 장르 예술가였고, 존 레논과 사귀기 이후부터는 다작을 통해 많은 앨범을 내놓은 엄연한 뮤지션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대부분의 작업은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하기보다는 낯설고 불편한 종류의 것이었고, 이는 존 레논과 함께 한 시기의 음악 작업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실제 1970년대 그녀가 앨범 혹은 싱글 차트에 올린 곡들은 [Unfinished Music] 류의 실험적인 곡들이 아닌, 보다 완만하고 대중친화적인 사운드를 지닌 곡들이었다.

1980년대 오노 요코의 음악은 존 레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이벤트와 함께 이야기된다. 1980년 공개한 [Double Fantasy]는 난해했던 지난 시도들 대비 한결 대중 친화적인 앨범이었지만, 연말에 존 레논이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음악 자체보다는 '존 레논의 유작'이라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로 소비되었다. 이는 그녀의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존의 죽음 이후 공개한 음악들은 '존의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하는' 류의 평가와 함께 소개되고, 역시 소비되었다.

이 모든 시기를 관통하는 오노 요코 음악의 핵심은 철저한 현지화에 있었다. 그녀는 굳이 일본적인 무엇을 찾기보다는 당대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시대의 최전선에서 있는 예술가로서의 자리를 늘 갈구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년기를 보내면서 잦은 마이그레이션/체류, 극단적인 사회적 경험 등을 통해 그녀는 무국적의 정체성을 연마했다. 이는 곧 미국 대중음악 시장 내에서도 그녀가 '일본적인 무엇'이 아닌, 동시대의 일원으로서 화제의 대상이 되는 일종의 '인식 차이'를 만들어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뮤지션



# 03 Chapter



## 록키 펠러스

지역 | 아시아  
 국가 | 필리핀  
 활동 시기 | 1960년대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Killer Joe	앨범	1963	16
Billboard Hot 100	Like the Big Guys Do	앨범	1963	55

### 아티스트 소개

필리핀 출신, 아버지와 네 아들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록키 펠러스는 1963년 'Killer Joe'를 통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깜짝 인기를 모은 밴드다. 이들을 처음 발굴한 것은 스킵터(Scepter) 레코드의 스탠리 칸(Stanley Khan)이었다. 스킵터 레코드는 자체 아티스트 개발과, 주로 서브 레이블들을 통해 딥 퍼플(Deep Purple), 아이슬리 브라더스(the Isley Brothers) 등의 편집 앨범 발매를 병행했다. 킬러 조는 스킵터 레코드가 버트 러셀(Burt Russell), 닐 다이아몬드(Neil Diamond) 등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곡을 받아 전략적인 흥행을 도모한 밴드였다.

유창한 영어로 로큰롤을 연주하고 부르는 필리핀 다섯 부자의 모습은 곧 미국 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당시 아이슬리 브라더스, 재니스 조플린(Janis Joplin) 등의 히트 작곡가였던 버트 러셀의 곡 또한 기존 히트곡들의 성공 공식을 반듯하게 따랐다. 그 결과 이들은 1963년 빌보드 Hot 100 차트에서 16위에 오르는 준수한 히트를 기록했다. 스킵터 레코드는 'Killer Joe'와 유사한 히트 공식에 따라 후속작들을 짧은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Killer Joe' 히트 후 바로 공개된 'Like the Big Guys Do'가 55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더 이상 싱글

III. 비영리권 무지선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무지선

# 03

## Chapter



차트에서 이들의 이름을 볼 수는 없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록키 펠러스는 로큰롤을 연주하는 필리피노라는 컨셉으로 주목을 받았다. 스캅터 레코드가 수급한 유명 작곡가들의 곡 또한 차트에서의 히트를 목표로 기획된, 다분히 전략적인 싱글이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록키 펠러스는 기억하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Killer Joe'는 1960년대 초를 대표하는 올드 팝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록키 펠러스가 데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틀즈(the Beatles)를 필두로 한 영국 밴드들의 미국 진출이 시작된 점 또한 이들의 장기 흥행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초기 단순한 호기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곧 강력한 경쟁자를 만나면서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무지선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무지선

# 03 Chapter



Charice Pembenco

## 채리스 팜핀코

지역 | 아시아

국가 | 필리핀

활동 시기 | 2000년대~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Note to god	싱글	2009	44
Billboard Hot 100	Pyramid	싱글	2010	56
Billboard Hot Dance Club Play	Pyramid	싱글	2010	1
Billboard Top 200	Charice	앨범	2010	8

### 아티스트 소개

1992년 필리핀 태생의 채리스는 2006년 자국의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인 [Little Big Star] 결승에 오르며 데뷔했다. 당시 그녀의 노래 실력은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도 알려졌고, 곧 이어 그녀는 [스타킹]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해당 방송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미국에까지 알려지면서 화제를 끌게 되었고, 곧 그녀는 엘렌 드제너러스 쇼(Ellen DeGeneres Show)와 굿모닝 아메리카(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하며 미국 무대에서도 데뷔하게 되었다. 그녀의 필리핀 데뷔 앨범은 이 시기를 전후로 해 발매되었는데, 팝 스탠다드곡들을 부른 커버 앨범이었다.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는 특히나 그녀의 미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 자신의 쇼에 그녀를 여러 번 출연시켜준 것은 물론이고, 그녀를 데이빗 포스터(David Foster)와 연결시켜 주기도 했다. 2009년 선공개된 싱글 'Note to god'이 차트 44위까지 올랐으며, 후속 싱글 'Pyramid'는 Hot 100에서는 56위에 머물렀지만 Dance Club Play 차트에서는 1위에 올랐다.

# 03

## Chapter



첫 정규앨범 [Charice] 또한 Top 200에서 8위까지 오르는 등 준수한 성과를 거뒀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채리스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어린 소녀가 유창하게 부르는 팝송 동영상은 어느 홍보 캠페인 이상의 파급 효과를 냈다.

오프라 윈프리와 데이빗 포스터라는 조력진의 도움 또한 채리스의 성공을 도왔다. 오프라 윈프리는 채리스의 첫 소개부터 앨범 발매를 전후 한 시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그녀를 자신의 쇼에 출연시켜줬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던 그녀의 쇼에 출연하면서 채리스는 단기간에 높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오프라 윈프리는 채리스를 데이빗 포스터에 연결시켜 주기도 했는데, 그는 트렌디한 댄스 트랙과 빅 발라드, 어덜트 컨템퍼러리 등 그녀가 기존에 잘 하던 것들과 최신 음악 스타일을 적절히 안배해 그녀에 최적화된 데뷔 앨범을 제작해 주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시아권 뮤지션

# 03 Chapter



## 2. 아프리카권 뮤지션

- 아프리카 아티스트 최초의 빌보드 차트 진입은 195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의 싱글 'Lovely lies'로, 그녀는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총 5장의 앨범과 3곡의 싱글을 메인 차트에 올려놓았음
- 아프리카 음악은 영미권에서 대개 '월드 뮤직'의 일환으로 소개됨.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프리카 내에서도 지리적 상황이나 국가/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영미권 시장에 소개되는 경향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사회/경제적으로 영미권과의 교류가 잦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어로 된 음악의 비중이 높고, '월드 뮤직'보다는 곧바로 메인 차트에서 '팝' 음악처럼 소개 및 소비되는 경우가 많음
  - 상술한 미리암 마케바 외에도 총 10장의 앨범을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에 올린 레이 디스미스 블랙 맘바조(Ladysmith Black Mambazo), 2000년대 후반 인기를 모은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Soweto Gospel Choir) 등이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아티스트임
- 서방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국가 자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아프리칸 월드 뮤직'의 강자로 인정받는 국가 및 출신 뮤지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월드 뮤직으로서의 성과를 토대로 그래미 수상, 메인 차트 진입 등을 도모하는 경우임
  - 말리, 가나, 세네갈 등이 그 예로, 이들은 나이지리아와 함께 '서부 아프리칸 월드 뮤직'의 4대 국가로 불림
  - 이들 국가의 아티스트들은 알리 파카 투레(Ali Farka Touré, 말리)나 유쑤 은두르(Youssou N'Dour, 세네갈)처럼 월드 뮤직 마스터로서의 평가를 얻은 뒤 이를 토대로 메인 차트 및 수상 등의 성과를 달성하며, 자국 내 유사한 장르/스타일의 아티스트를 군집화함으로써 후발 아티스트들을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 또한 주도함
-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는 자국 내에서 경제적 활로를 찾지 못한 거장 뮤지션들이 재정적 도피처로 월드뮤직의 힘을 빌어 유럽 및 미국에 진출한다는 일부 순수론자의 비판이 일기도 함. 이러한 '문화적 망명'은 결과적으로 아

# 03

## Chapter



프리카의 음악과 음악인들을 영미권에 소개한 주된 동기 중 하나였음

- 최근 아프리카 음악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 서아프리카 4대 국가로 한정되던 시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군소 국가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차트에서의 성과 또한 다각화되고 있음
  - 개중에는 안젤리꼬 키드쥬(Angelique Kidjo, 베냉공화국), 세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 까보베르데)처럼 낯선 군소국가 출신들도 있음
- 영미권에서 성과가 잡히지 않는 아프리카 음악이라 하더라도 상당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서브 장르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트 진입 및 수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이들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는 역으로 이들의 음악을 영미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최근 아프리카의 젊은 아티스트들은 미국보다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 월드 뮤직 수요가 탄탄한 국가를 메인 타겟으로 음악을 발매하고, 이들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얻는 경우 또한 찾아지고 있음
- 자원 외교, 원조 경제나 이민/유학 등 유럽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가 잦았던 북서 아프리카의 젊은 음악인들은 양국의 음악을 절충하는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함
  - 과거 '전통 아프리카 음악의 수출' 중심이었던 진출 사례와 차별화된 이들의 음악은 월드 뮤직이 아닌 재즈, 클럽 댄스 차트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03 Chapter



Cesaria Evora

## 세자리아 에보라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까보베르데  
 활동 시기 | 1950년대~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Sao Vincente	앨범	2001	188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Cabo Verde	앨범	1997	3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Cafe Atlantico	앨범	1999	4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Cesaria	앨범	1995	2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ao Vincente	앨범	2001	2

### 아티스트 소개

세자리아 에보라는 1940년, 아프리카의 군소 국가인 까보베르데에서 태어났다. 까보베르데는 규모는 작지만 지리적 영향으로 포르투갈, 브라질, 영국 등 다양한 인근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였으며, 이로 인해 독특한 색채의 전통 음악을 지니고 있었다. 16세 때부터 클럽을 중심으로 노래를 시작한 이래, 그녀는 곧 자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그녀는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유럽 진출 또한 우연히 까보베르데를 방문했던 유럽인들이 그녀의 공연 실황을 테이프로 녹음한 것이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차트에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1970년대 중반 가수로서의 삶을 그만두었고, 10년이 지난 1985년에야 포르투갈 레코드사의 요청에 의해 무대로 복귀했다. 1985년 포르투갈에서



# 03 Chapter



기존 까보베르데 여성 가수들의 히트곡을 커버한 앨범을 발표하고, 이후 프랑스에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총 4장의 앨범을 더 발매했다. 다수의 유럽 국가 및 미국 내 팬들의 요청으로 이 무렵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투어 활동을 했으며, 이를 통해 그녀의 국제적인 명성 또한 높아져 갔다. 이 무렵 발매된 [Cabo Verde], [Café Atlantico] 앨범은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 정상권에 올랐으며, 2001년 공개된 [Sao Vincente]는 빌보드 Top 200에 올랐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포르투갈, 브라질, 영국 등의 문화가 뒤섞인 까보베르데 음악 특유의 색깔은 이국적인 음악을 ‘찾아 듣는’ 영미의 적극적인 청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끌었다. 세자리아 에보라는 바로 그 까보베르데의 최고 인기 여성 가수로 소개되었고, 영미권 내 팬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시장에 소개되었다. 1950년대부터 자국에서 가수로 활동했지만 사실 그녀는 80년대까지 영미권 내에서 별다른 홍보 활동은 고사하고 앨범 발매 또한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무대를 담은 테이프가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퍼져 나갔고, 그 결과 레코드사에 의해 세자리아 에보라는 유럽에서의 앨범 녹음을 역으로 제안 받았다.

또한 그녀는 철저히 공연 중심으로 활동하며 천천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팬덤을 늘려갔다. 대부분의 앨범 또한 그녀의 공연 실황을 담은 것이었다. 앨범 아티스트로서 결코 다작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수십 년간 쌓여온 무대 경험을 토대로 투어 시마다 호평을 받았으며 이는 다시 그녀의 앨범에 대한 홍보 수단 역할을 했다.

# 03 Chapter



##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  
활동 시기 | 1980년대~현재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Classic Tracks	앨범	1990	9
Billboard Top 200	Gift Of The Tortoise	앨범	1994	8
Billboard Top 200	Ilembe: Honoring Shaka Zulu	앨범	2008	3
Billboard Top 200	Ladysmith Black Mambazo And Friends	앨범	2013	2
Billboard Top 200	Liph Iqiniso	앨범	1994	12
Billboard Top 200	Long Walk To Freedom	앨범	2006	2
Billboard Top 200	No Boundaries	앨범	2005	3
Billboard Top 200	Raise Your Spirit Higher: Wenyukela	앨범	2004	1
Billboard Top 200	Songs From a Zulu Farm	앨범	2011	5
Billboard Top 200	Two Worlds One Heart	앨범	1990	2

### 아티스트 소개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Ladysmith Black Mambazo)는 1974년 조셉 샤발랄라(Joseph Shabalala)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여덟 아이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조셉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고 소년 가장으로서 힘겹게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는 고된 일상에 대한 탈출구로서 음악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남아프리카 줄루(Zulu) 족의 전통 보컬 음악인 줄루를 구현하는 블랙스(The Blacks)라는 팀을 결성, 활동했다. 블랙스는 자국의 각종 보컬 경

# 03 Chapter



연대회에서 우승하며 안정적으로 명성을 높여갔지만, 조셉은 줄루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늘 아쉬워했다. 이 무렵 그는 가스펠 음악을 듣게 되었고, 곧 스스로 크리스찬이 되는 한 편 가스펠 음악과 줄루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팀으로서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를 결성했다.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는 결성 이후 1988년 워너(Warner)와 영미권 계약을 맺기 전까지 50장이 넘는 앨범을 발매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들의 새로운 음악 스타일은 자국 내 많은 아티스트뿐 아니라 당시 월드 뮤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영미권 아티스트들의 관심 또한 자극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이먼 앤 가펩클(Simon and Garfunkel) 해체 이후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 목말라 있던 폴 사이먼(Paul Simon)이었다. 그는 새 앨범 [Graceland]를 준비하며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3위와 4곡의 Top 50 싱글, 1987년 그래미 어워드의 최우수 앨범상을 수상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는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팀은 1988년 워너와 글로벌 계약을 맺었으며, 1990년 [Classic Tracks]부터 발매한 10장의 앨범 중 9장을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의 Top 10에 올려놓는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들의 최근작은 2012년 발매된 [Ladysmith Black Mambazo and Friends]로, 이 앨범은 2012년 월드뮤직 차트 2위로 등장한 뒤 2013년 다시 한 번 차트 2위로 재상승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는 남아프리카 전통 음악인 줄루와 가스펠 음악을 섞은 독특한 형태의 음악을 구사했다. 이는 팀의 리더였던 조셉 샤발랄라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이루어 낸 성취였다. 하지만 팀의 영미권 내에서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물론, 폴 사이먼의 [Graceland]였다. 당시 정상급의 인기와 함께 음악성 또한 인정받고 있던 폴 사이먼이 이들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만 알려져 있던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의 음악은 영미권에서도 찬사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에 소개되기 십여 년 전부터 쌓여 온 팀의 풍성한 디스코그래피는 이들이 미국 시장에 소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앨범을 소개하고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 03 Chapter



## 미리암 마케바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

활동 시기 | 1960년대~2000년대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아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Lovely Lies	싱글	1956	45
Billboard Hot 100	Malayisha	싱글	1968	85
Billboard Hot 100	Pata Pata	싱글	1957	12
Billboard Top 200	An Evening With Belafonte/Makeba	앨범	1965	85
Billboard Top 200	Miriam Makeba In Concert!	앨범	1967	182
Billboard Top 200	Pata Pata	앨범	1968	74
Billboard Top 200	The Voice Of Africa	앨범	1964	122
Billboard Top 200	The World Of Miriam Makeba	앨범	1963	86

### 아티스트 소개

1932년 코사(Xhosa) 족 주술사의 딸로 태어난 미리암 마케바는 출생 직후 약 6개월을 모친과 함께 감옥에서 보내는 등 파란만장한 유년기를 보냈다. 타고난 보컬 톤을 주 무기로 자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무대를 소화하던 그녀는 1953년 맨하탄 트랜스퍼(Manhattan Transfer)의 일원으로 영미 팝 신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이후 스카이라크(Skylarks) 결성을 위해 1958년 잠시 팀을 떠났던 그녀는 1959년 뮤지컬 킹콩(King Kong)의 여주인공 역을 맡으며 다시 맨하탄 트랜스퍼에 복귀했다. 같은 해 그녀는 총 18개월에 걸친 아프리카 투어를 위해 아프리카 무대에 복귀했는데, 이 금의환향 스토리는 자국민은 물론 유럽, 미국 내에서 그녀의 인기를 더

# 03

## Chapter



욱 끌어올렸다.

이후로도 그녀는 1968년까지 총 3장의 앨범을 빌보드 앨범 차트 Top 100 안에 올렸으며, 1956년의 'Lovely Lies'부터 1968년의 'Malayisha'까지 총 3곡의 싱글을 싱글 차트 Top 100에 올렸다. 특히, 이 중에서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와의 카네기홀 공연 실황을 담은 1960년의 더블 앨범은 상업적 성공 뿐 아니라 196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포크 레코딩 상을 받는 등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미리암 마케바는 자국 무대에서 활동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앨범 아티스트로서의 데뷔는 영미권 보컬 그룹인 맨하탄 트랜스퍼에서 시작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미국 진출 후 자국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시기별로 활동 지역을 구분하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달리 그녀는 영미권 활동과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병행했다. 아프리카 출신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녀의 성향은 영미권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그녀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진보적인 성향의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돌이켜보건대 오늘날의 소셜테이너(Social-tainer)와 유사한 포지셔닝이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

활동 시기 | 2000년대~현재



Soweto Gospel Choir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World Album	African Spirit	앨범	2007	9
Billboard Top World Album	Blessed	앨범	2006	4
Billboard Top World Album	Grace	앨범	2010	10
Billboard Top World Album	Voices From Heaven	앨범	2005	1

### 아티스트 소개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은 2002년 데이빗 물로베치(David Mulovhedzi)와 버버리 브라이어(Beverly Bryer)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팀은 아프리카 가스펠 음악과 레게, 주술 음악, 팝 음악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음악을 선보였는데, 30여 명이 넘는 멤버들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무대는 이들의 트레이드마크였다. 이들은 샤나치에(Shanachie)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2005년 [Voices from Heaven]을 발매하며 정식으로 데뷔했다. [Voices from Heaven]은 발매 직후부터 '천상의 하모니'라는 극찬을 받으며 인기를 모으더니, 같은 해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1위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원 히트 원더가 될 거라던 일부의 예상과 달리 같은 해 공개한 후속작 [Blessed]가 같은 차트에서 4위, 이듬해 공개된 [African Spirit]가 9위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히트를 이어갔으며, 끊임없는 전 세계 순회공연 또한 지속적인 호평을 이끌어냈다. 2009년 팀의 리더였던 데이빗이 암으로 사망하면서 잠시 휴지기를 갖기도 했으나, 이듬해 새 앨범 [Grace]를 발매하고 월드뮤직 차트 10위를 기록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소웨토 가스펠 합창단의 음악은 기존 가스펠 음악에 아프리카 음악 특유의 역동성과 팝 음악의 대중성을 결합하며 전에 없던 영역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인권 운동의 상징이었던 소웨토 출신이라는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음악은 청자들로 하여금 일종의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적잖은 영미 청자들이 이들의 음악을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역사적인 배경에서 해설했던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무대로부터 나오는 특유의 에너지 또한 이들의 명성을 드높인 중요한 요소였다. 앨범에 실린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동적인 무대를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 무대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들의 에너지는 공연을 본 이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중에서도 2003~4년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의 만석 사례는 이듬해 이들의 데뷔 앨범 [Grace]에 대한 기대심리를 극대화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Salif Keita

## 살리프 케이타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말리

활동 시기 | 1970년대~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Amen	앨범	1991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M'Bemba	앨범	2006	7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Moffou	앨범	2002	5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The Mansa Of Mali – A Retrospective	앨범	1994	4

### 아티스트 소개

1949년 말리의 명문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살리프 케이타는 음악가의 길을 걷기로 하면서 친부로부터 의절당하는 불운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1967년 바마코로 이주해 나이트클럽에서 그의 형제 중 한 명과 무대를 소화하며 기회를 엿보던 그는 2년 뒤 당시 국가가 지원하는 밴드였던 레일 밴드(The Rail Band)의 일원으로 정식 합류하면서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살리프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인해 레일 밴드는 보다 높은 명성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살리프는 밴드 내 몇몇 멤버와 함께 활동 무대를 코트디부아르로 옮기고 팀 이름 또한 Les Ambassadeurs Internationaux로 명명했다. 말리 음악을 기반으로 쿠바, 아프리카 팝 음악들로부터 고루 영향을 받은 이들의 음악은 곧 코트디부아르를 넘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 03

## Chapter



살리프는 1984년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며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공개된 솔로 앨범 [Soro]를 통해 그는 프랑스 내 거주하는 15,000명 이상의 말리 이민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안착했다. 이후 1991년 [Amen], 1994년 [The Mansa of Mali]는 유럽 무대를 넘어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정상권에 오르며 그의 활동 반경을 더욱 넓혔다. 2002년 데카(Decca)로 이적한 후에는 그의 최고작으로 평가 받는 [Moffou]를 발표했는데, 이 앨범은 월드뮤직 차트 5위뿐 아니라 이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월드뮤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본류로의 회귀를 목표로 말리로 돌아가 신보 [M' Bemba]를 제작, 발표했는데, 이 앨범 또한 대중과 평단으로부터 고루 좋은 반응을 얻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살리프 케이타의 음악이 최초로 아프리카 외에서 소개된 것은 1987년 [Soro]를 통해서였는데, 이 앨범에서 그는 이미 팬 기반이 확보되어 있던 기존 아프리카 음악 스타일 외에도 재즈, 펑크, 팝, R&B 등 다양한 장르를 능란하게 다루며 월드뮤직 팬과 일반 청자들로부터 고루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월드뮤직과 팝 음악을 두루 안을 수 있는 음악을 고민했으며, 각 앨범마다 차별화된 기획 방향과 작업 스타일로 특정 스타일에 고착되는 것을 지양했다. 평단은 그의 이러한 부분을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Moffou]의 그래미 노미네이트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받기도 했다. 덧붙여, 유럽 활동 초기 유럽 각국의 말리 이민자들을 포함, 아프리카에서 경제적 부흥을 꿈꾸며 이민 온 많은 아프리카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 또한 그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 03 Chapter



## 알리 파카 투레



Ali Farka Touré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말리

활동 시기 | 1990년대~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In The Heart Of The Moon	앨범	2005	6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Niafunke	앨범	1999	14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avane	앨범	2006	2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Talking Timbuktu	앨범	1994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The River	앨범	1991	6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The Source	앨범	1993	1
Grammy Awards	In The Heart Of The Moon	앨범	2005	Best
Grammy Awards	Talking Timbuktu	앨범	1994	

### 아티스트 소개

알리 파카 투레는 서아프리카 출신 뮤지션 중 상업적인 면은 물론 평가 측면에서도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뮤지션으로 꼽힌다. 알리 파카 투레는 1939년 말리의 귀족 가문인 소하이(Sorhai)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10세 때부터 기타를 배웠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우는 것 이외의 음악 활동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17세 되던 해 기니 출신 기타 연주자 케이타 포데바(Keita Fodeba)의 공연을 보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뜻을 굳힌 뒤 그의 부모를 설득했고, 바마코로 거처를 옮겨 다양한 뮤지션들과 교류해 가며 자신만의 음악을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만들어갔다. (실제 그의 활동명이자 별명이기도 한 당나귀(Farka)는 그의 부모가 좀체 고집을 꺾지 않는 아들을 당나귀에 비유하면서 붙은 것이다.) 알리는 바마코에서 독학으로 배운 기타에 말리 전통의 단현 악기인 구르켈(Gurkel)의 연주 기법과 말리 전통 민요의 리듬 등을 결합하기 시작했으며, 레이 찰스(Ray Charles)나 존 리 후커(John Lee Hooker) 같은 아프리카계 미국 뮤지션들로부터도 깊은 영감을 받았다. 1976년 프랑스에서 첫 앨범을 발매한 이래, 그는 십여 개의 서아프리카 언어로 노래하며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명성을 얻었다. 때때로 유럽과 미국 순회 공연을 하기도 했고, 일부 월드뮤직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명성을 얻을수록 농경 생활의 여유를 그리워했고 결국 1990년, 음악 활동을 단념하고 고향인 팀북투(Timbaktu)로 귀향해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게 된다. 1991년과 1993년 각각 발표된 [The River], [The Source]가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의 6위, 1위를 각각 차지하며 그에 대한 미국 팬들의 관심이 극대화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였다.

그러나 그는 프로듀서 라이 쿠더(Ry Cooder)의 2년여의 설득 끝에 잠시 음악계로 복귀, [Talking Timbaktu]를 발표했는데, 이 앨범이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1위 및 이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월드뮤직 상을 수상하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수록곡 'Ai Du'는 영화 [언페이스풀(Unfaithful)]에 삽입되며 재조명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일생을 자신의 고향에서 보내고자 했으며, 1999년 [Niafunke]로 복귀할 때까지 다시 농부의 삶을 살았다. 2004년에는 동명의 지역 시장으로 당선되어 앨범 수익금을 하천 정비, 도로 개량, 전력 공급 등의 지역 사업에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3월 66세의 나이에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같은 해 발표된 유작 앨범 [Savane] 그의 역대 최고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2위에 올랐으며, 그 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월드뮤직 앨범상 또한 수상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알리 파카 투레의 음악이 미국 청자들에게 폭넓게 공유된 것은 말리 전통음악과 미국 블루스 음악을 아우르는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채가 큰 역할을 했다. 지리적 특성 상 아프리카와 유럽 간 교류가 잦았던 말리의 국가 특성은 알리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알리의 극적인 인생사 또한 미국 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요소였다. 귀족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음악을 위해 독립,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고 민속 악기, 민요와 블루스 음악을 결합해 온 그의 독특한 이력은 월드뮤직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여타 아프리카 출신 음악인

# 03

## Chapter



들과 달리 수년에 한 번 앨범을 내는 과작 아티스트로서의 면모 또한 팬들 및 동료 음악인들로 하여금 그의 신보를 찾아 듣고, 그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특히, 라이 쿠더는 그의 앨범 작업에 프로듀서를 자청했으며 음악 활동을 중단했던 그의 1994년 컴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대표적인 팬 겸 조력자였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아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 안젤리끄 키드조



Anelique Kidjo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베냉공화국  
활동 시기 | 1990년대~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200	Djin Djin	앨범	2007	58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Djin Djin	앨범	2007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Logozo	앨범	1991	1
Grammy Awards	Ayé	앨범	1995	Best World Music Album/MV, Nominee
Grammy Awards	Djin Djin	앨범	2007	Best World Music Album
Grammy Awards	Õyö	앨범	2010	Best World Music Album, Nominee
NAACP Image Awards	Djin Djin	앨범	2007	Outstanding World Music Album

### 아티스트 소개

안젤리끄 키드조는 1960년,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의 해안 도시인 쿼다(Quidah)에서 태어났다. 여배우이자 댄서, 연극 제작자였던 모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던 그녀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 외에도 아레사 프랭클린, 지미 핸드릭스, 산타나 등의 영미권 음악과 미리암 마케바 같은 아프리카-팝 뮤직 등의 고른 영향을 받았다. 28세가 되던 해 데뷔 앨범 [Pretty]를 발표, 수록곡 'Ninive'가 히트했으나 베냉공화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그녀는



# 03

## Chapter



앨범 발매 후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그녀는 1987년 처음 만났던 프랑스 출신의 베이스 연주자 장 에브하일(Jean Hébrail)과 결혼,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장은 이후 앨범 작업에서 그녀가 영미의 유명 뮤지션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이후 아프리카와 영미 음악 사이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1998년부터 발매한 아프리카 3부작 - [Oremi], [Black Ivory Soul], [Oyaya!] - 은 그녀의 대표작으로, 베닝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지의 전통 음악을 탐구했는데, [Oremi]는 미국의 재즈와 R&B, [Black Ivory Soul]은 브라질 민속음악, [Oyaya!]는 카리브 주크 사운드를 각기 테마로 삼아 아프리카 음악과의 접목을 도모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유니세프(UNICEF) 친선대사를 맡아 아프리카 전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바통가 재단(Batonga Foundation)을 설립해 소외계층의 교육 자선활동 또한 활발히 벌이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안젤리코 키드조는 빼어난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유럽과 미국 뮤지션들에게 먼저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안젤리코의 미국 진출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1987년 그녀와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야스퍼 반트호프(Jasper van't Hof)는 그녀의 보컬에 반해 이듬해 그녀의 인터내셔널 데뷔작 [Parakou]를 프로듀스했으며, 그녀의 1991년작 [Logozo]는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Miami Sound Machine)의 조 갈도(Joe Galdo)가 프로듀스하고 브랜포드 마살리스(Branford Marsalis)가 색소폰 연주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존 레전드(John Legend), 유투(U2)의 보노(Bono), 산타나, 알리샤 키스(Alicia Keys) 등의 뮤지션들이 그녀와 협업한 바 있다.

팝 음악에 대한 유연한 접근 또한 그녀의 음악이 영미 팬들에게 친숙하게 들리도록 하는 데에 일조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프리카 전통 음악 외에도 팝, 락, 재즈, R&B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들어왔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이후 그녀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매끈하게 접목하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 03 Chapter



## 유쑤 은두르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세네갈

활동 시기 | 1990년대~현재



Youssou N'Dour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7 Seconds	싱글	1994	98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Dakar-Kingston	앨범	2011	5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Egypt	앨범	2004	6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Eyes Open	앨범	1992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Nothing's in Vain	앨범	2002	6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Rokku Mi Rokka	앨범	2007	8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et	앨범	1990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The Guide	앨범	1994	전세계 400만장 이상 판매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세네갈 출신의 유쑤 은두르(Youssou N'Dour)는 1959년, 빈민촌인 메디나(Medina) 지역에서 태어났다. 서아프리카 구술 음악의 전통(oral tradition)을 어머니로부터 전수 받아 4옥타브 이상을 오르내리는 음역을 보유할 수 있었던 유쑤는 12세 때부터 댄스 클럽 주변의 주차장이나 길거리 등에서 공연을 하며 돈을 벌었다. 소울풀한 목소리를 지닌 어린 소년의 노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에게 퍼졌으며, 그는 당시 세네갈의 스타 밴드 오브 다카르(Star Band of Dakar)로부터 보컬리스트로 스카웃 제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후 밴드는 이름을 슈퍼 에뜨알

# 03 Chapter



르(The Super Etoile)로 바꾸고 유수의 활약에 힘입어 세네갈 국내는 물론 유럽 등지에서도 명성을 얻게 되었다. 유수는 이 무렵 이미 12장의 앨범을 레코딩했는데, 그 대부분은 공연 실황을 테이프로 담거나 열악한 녹음 환경에서 작업한 것이다. 1984년부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세네갈 이민자들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의 유럽 공연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곧 유럽 각지에서 그의 팬들이 생겨났다.

1980년대 중반 아프리카 음악이 미국 시장에 활발히 소개될 무렵 자연스럽게 유수의 음악 또한 미국에 소개되었다. 그는 폴 사이먼(Paul Simon)의 [Graceland]에 참여해 처음 이름을 알렸고, 1986년 피터 가브리엘(Peter Gabriel)의 [So] 앨범에 수록된 "In Your Eyes", "Shaking the Tree"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뒤이어 1988년 피터 가브리엘,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스틱(Sting) 등이 참여해 '인권과 정의'를 노래했던 [Human Rights, Now!]에 아프리카 출신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며 대중들의 뇌리에 '아프리카산 월드 뮤직의 대표주자'로 각인되었다.

앨범 활동에 있어서도 그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Spike Lee)의 레이블이었던 40 에이커스 앤 어 물 뮤직웍스(40 Acres & A Mule Musicworks)에서 제작된 그의 앨범 [Eyes Open]은 '미국 흑인'과 '아프리카 흑인' 사이의 교류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홍보되어 평단의 호평과 상업적 성과를 두루 거머쥐었고, 그 해 그래미상 후보로도 지명되었다. 1994년 발표한 [The Guide]의 수록곡이었던 '7 Seconds'는 싱글로 발표되어 2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1995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월드 뮤직 어워드(World Music Awards)에서는 '유럽 올해의 노래'로 지정되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유수 은두르의 음악과 활동은 1980년대 중반 미국인들과 매체가 소비하던, '미국에 진출한 아프리카 출신 음악인'의 모습에 가장 정확히 부합하는 예 중 하나였다. 그는 영어로 노래하고 영미 팝 스타들과 어울리는 데에 익숙했으며, 그 안에서 아프리카의 인권, 전통 등 미국인들이 오래 상상할 법한 진보적 아프리카인의 단면들을 어필했다. 이 때문에 도리어, 세네갈의 일부 팬들은 유수가 '지나치게 서양화된' 뮤지션임을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유수의 음악이 아프리카인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었으나 낙관적이고 계몽적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는 점 또한 '아프리카 음악 = 저항 음악'이라는 미국 대중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했다. 실제로 그는 '전 세계에 아프리카의 좋은 면을 보여주자'는 신념

# 03

## Chapter



으로 음악 활동을 했음을 인터뷰 자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유수의 이러한 음악적 지향은 이후 세대들이 'Set-Setaal(Be Clean)' 운동을 통해 자국의 환경, 주거 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의 자발적 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데에 정서적, 상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아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Zap Mama

## 젯 마마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자이레 외  
활동 시기 | 1990년대~현재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A Ma Zone	앨범	1999	6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Adventures In Afropea 1	앨범	1993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Ancestry In Progress	앨범	2004	1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Recreation	앨범	2009	8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absylma	앨범	1994	3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even	앨범	1997	4
Billboard Top World Music Album	Supermoon	앨범	2007	6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중부 아프리카의 소국 자이레 출신 마리 다울레(Marie Daulne)를 주도로 결성된 5인조 보컬 그룹 젯 마마(Zap Mama)는 안젤리코 키드조, 르 누비안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 출신 보컬 그룹 중 하나다. 마리는 자국의 혁명으로 인해 태어나기도 전에 부친을 잃고 이후 각지를 방황하다 유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20세 되던 해 피그미족 전통 음악을 듣고는 자신의 음악적 원류를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다. 그 곳에서 피그미족의 전통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뒤, 그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젯 마마를 결성했다.

1993년의 데뷔 앨범 [Adventures In Afropea]는 여타 악기 소리를 최소화하고 멤버들의 보컬

# 03

## Chapter



을 최대한 부각시킨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1위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후에도 이들은 2007년 [Supermoon] 앨범까지 총 6장의 정규 앨범을 빌보드 월드뮤직 차트 Top 10에 올려놓으며 꾸준히 인기를 모았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젯 마마의 음악은 가스펠 및 R&B를 중심으로 피그미족의 전통 가창을 혼합한 형태로 출발했다. 보컬의 비중을 유난히 강조한 덕에 초기에는 아카펠라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198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온 '아프리카산 월드뮤직'에 대한 서구 사회의 관심은 이들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시장에 소개하는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 음악 청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아프리카적 사운드가 들어간 가스펠/R&B'로 받아들이고, 소비했는데, 디스코그래피가 더해갈수록 아프리카 음악보다는 보컬 그룹으로서의 포지셔닝이 강화되는 데에 일부 팬들은 반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젯 마마의 세계적인 성공에는 에리카 바두와의 협연 또한 큰 역할을 차지했다. 이미 영미권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에리카 바두는 고향이자 음악적 원류로서 아프리카에 대한 작으심을 어필하는 아티스트였는데, 그런 그녀가 젯 마마와 [Worldwide Underground]에서 협연하면서 젯 마마는 세계 시장에서 아프리카 출신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 마누 디방고

지역 | 아프리카

국가 | 카메룬

활동 시기 | 1970년대



Manu Dibango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Soul makossa	싱글	1973	35
Billboard Top 200	Soul makossa	앨범	1973	79

### 아티스트 소개

마누 디방고(Manu Dibango)는 영미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프리카 출신 색소폰 연주자 중 하나다. 1950년대 초부터 색소폰 주자로서 활동했으며 활동 배경 또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자이레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를 넘어 프랑스, 벨기에, 자메이카 등까지를 포함했다.

1934년 태어난 마누는 1949년 부모를 따라 파리로 건너간 이민 1.5세대였다. 어려서는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했으나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을 접한 뒤 전공을 재즈 색소폰으로 바꿨으며, 부모의 반대를 피해 1956년에는 거처를 브뤼셀로 옮겨야 했다. 1960년 다시 거처를 콩고로 옮긴 그는 자이레 출신 조셉 카베셀레(Joseph Kabesele)가 이끄는 밴드 아프리카 재즈(African Jazz)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총 5년간을 팀에서 보낸 뒤에는 다시 솔로 주자로 독립해 다양한 앨범에서 세션으로 참여했다.

그의 미국 진출은 1972년 발매한 앨범 [Soul Makossa]를 통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까지 아프리카 태생이지만 고상한 유럽의 재즈 뮤지션이었던 마누는 카메룬으로 돌아온 뒤 카메



# 03 Chapter



론 서민들의 전통 음악이었던 마코사에 관심을 보였다. 이 무렵 카메룬의 장기 집권자였던 아마두 아히조(Amadou Ahidjou)가 아프리카 국제 축구대회를 위한 곡을 써달라고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Soul Makossa]를 제작, 발표했다. 앨범은 빌보드 차트 79위, 동명의 싱글은 35위까지 오르는 성과를 보였으며 유럽과 아프리카 재즈 신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마누의 이름은 곧 전세계 재즈 및 팝 뮤지션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졌다. 특히나 유명한 사례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인데, 그는 [Thriller] 수록곡 ‘Wanna be Startin’ Something’의 후렴구에서 ‘Soul Makossa’를 샘플링 수준으로 활용했다. 곡이 히트하면서 자연스럽게 ‘Soul Makossa’와 마누의 이름은 다시 한 번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후 월드뮤직 붐이 일면서 그의 음악이 재조명을 받자, 그는 1994년 유수 은두르, 피터 가브리엘, 시네이드 오코너(Sinead O’conor), 샬리프 케이타,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 등 아프리카와 영미의 유명 뮤지션이 총출동한 [Wakafrika] 앨범을 공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아프리카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영미권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한 여타의 뮤지션들과 달리, 마누 디방고의 음악적 기반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즈였다. 그는 마코싸 음악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이미 유명한 재즈 색소폰 연주자였으며, 이 무렵 그의 활동 근거지 또한 카메룬이 아닌 파리였다.

그러나 마누 디방고의 음악이 미국의 일반적인 음악 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그가 음악적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모국으로 돌아가 마코싸 음악을 탐구한 이후부터였다. [Soul Makossa]는 카메룬 전통의 마코싸 음악을 차용했지만 전통에 집착하기보다는 마코싸의 핵심인 흥겨운 리듬과 코러스 등의 요소를 활용한 팝 지향적 앨범이었다. 1973년 디스코 열풍 속에서 이 곡은 색다른 리듬과 구성의 댄서블 트랙으로 소개되었다. 많은 영미 뮤지션들이 아프리카 음악의 리듬과 코러스를 팝 음악의 구성 안에 훌륭하게 녹여낸 그의 역량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는 이 무렵부터 장르를 넘나들며 다수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마이클 잭슨이 ‘Wanna be Startin’ Something’을 통해 [Soul Makossa]를 대중들에게 재각인 시킨 점 또한 마누가 지속적으로 영미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 히트 이후 많은 팝 스타들의 러브콜을 받았으며,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994년 대작 앨범 [Wakafrika]를 발표하기도 했다.

III. 비영리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아프리카권 뮤지션

# 03 Chapter



## 3. 유럽권 뮤지션

-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의 음악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첫 케이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가수 도메니코 모두뇨(Domenico Modugno)가 부른 'Nel Blu Dipinito Blu (Volare)'라고 볼 수 있음. 이 곡은 제 1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음반상과 올해의 곡 상을 수상하면서 스페인어를 제외한 비영어권 언어로서는 처음으로 대성공을 거둠
- 도메니코 모두뇨 이후 지금까지 유럽 출신의 비영어권 뮤지션이 영미권에서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1) 유럽에서 강세를 보이는 비 록밴드 계열의 장르를 통한 진출, 2) 음악 매체 외의 방송과 미국의 유명 아티스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안정된 인지도 구축, 3) 현지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을 타겟으로한 특화 앨범 발매, 4)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와 같은 판유럽 시장의 성장 등을 들 수 있음
- 록밴드가 아닌 그룹 음악으로 성공한 가장 큰 케이스는 스웨덴의 아바(ABBA)와 에이스 오브 베이스(Ace of Base)가 있음
  - 아바는 빌보드 핫 200(Billboard Hot 200)차트에서만 14장의 음반을 진입시켰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낸 첫 음반만 2,3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림
  - 미국의 경우에는 밴드나 싱어송라이터가 혼자 활동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었고 가수roman 활동하는 경우에는 레이블에서 여러 송라이터를 두고 있었음.
  - 반면 앞에서 명시한 두 그룹에서는 보컬과 송라이터가 함께 팀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에 따른 음악 스타일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음악 기능인으로서의 스타성보다 뮤지션으로서의 스타성이 부각될 수 있었음
- 2000년 이후 영미권 음악의 메인 스트림의 독점력이 강해지는 반면, 유럽에서는 클럽과 야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한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음악적 성장은 2000년대 후반 DJ 출신의 음악 프로듀서들이 뮤지션으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덜란드의 티에스토(Tiesto)와 프렌치 하우스의 대표주자인 다프트 펑크(Daft Punk)와 다비드 게타(David Guetta)임

# 03 Chapter



- DJ출신의 뮤지션 겸 프로듀서들의 가장 큰 공략점은 미국에서 강한 보컬형의 가수들을 자신들의 음악과 매치하여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점임
  - 피처링(Featuring)의 형식으로 한 명의 유명 가수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가수를 자신의 곡에 차용해서 쓰고 또 새로운 가수들을 위해서 곡을 프로듀싱 하는, 이미 미국에 인지도가 충분히 있었던 가수들을 통한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점임
  - 다프트 핑크의 경우에도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렉트로니카 음악'이라는 유럽 중심적이지 마니아적 장르에서 벗어나지 못 했으나 2013년에 발매된 앨범 [Random Access Memories]에서는 미국의 초특급 스타 패럴(Pharrell)을 전면 배치하여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됨
- 유럽 출신, 특히 북유럽 출신의 뮤지션들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요인에는 낮은 언어적 장벽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함
  - 아바를 비롯해 에이스 오브 베이스, 스웨덴의 댄스 팝 듀오 록시트(Roxette)는 물론이고 독일의 전설적인 록그룹 스콜피온스(Scorpions)와 핀란드의 힘(HIM) 역시 처음부터 영어로 된 곡들을 발표했는데, 특히 아바의 경우에는 음악적 장르가 주는 가벼운 이미지 덕분에 어려운 가사를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쉽고 귀에 잘 들어오는 영어들을 썼고, 미국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들에서도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음
  - 또한 미국에서 성공한 유럽 출신의 뮤지션이 가지는 공통점은 현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알아보고 미국권에서 성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했던 현지 제작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이를 보여주는 것이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경우인데, 1993년 아리스타 레코드(Arista Record)의 클라이브 데이비스(Clive Davis)에 의해 북미에 소개된 이 그룹은 대성공을 이루지만 2000년 이 레이블과 계약이 끝난 후에는 이전과 견줄만한 성공은 다시 이루지 못함
- 현재까지도 열리고 있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는 유럽의 각 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가들이 나라를 대표하여 경합을 벌임
  - 2000년대 이전에는 이 대회 출신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았으며 앞에서 언급했던 도메니코 모두뇨, 아바, 러시아의 타투(t.A.T.u) 등이 대표적인 뮤지션임

# 03 Chapter



Tiesto

## 티에스토

지역 | 유럽  
 국가 | 네덜란드  
 활동 시기 | 1994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In Search Of Sunrise 5: Los Angeles	앨범	2006	164
Billboard 200	Elements Of Life	앨범	2007	71
Billboard 200	In Search Of Sunrise 6: Ibiza	앨범	2007	170
Billboard 200	In Search Of Sunrise 7	앨범	2008	91
Billboard 200	Kaleidoscope	앨범	2009	59
Billboard 200	Club Life Volume One: Las Vegas	앨범	2011	52
Billboard 200	Dance (RED) Saves Lives: Presented By Tiesto	앨범	2012	56
Billboard 200	Club Life: Volume Two: Miami	앨범	2012	16
Grammy	Elements of life	앨범	2008	Best Electronic/ Dance Album nominee

### 아티스트 소개

티에스토는 네덜란드 출신의 일렉트로니카 음악 DJ 겸 프로듀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DJ 로 알려져 있다. 클럽에서의 오랜 DJ 생활을 바탕으로 네덜란드와 유럽 내 입지를 다졌고 1997년 자신이 세운 블랙홀 레코딩이라는 레이블을 통해 컴필레이션 시디 두 장을 발매한다. 2001년에 발매한 그의 솔로 앨범 [In My Memory]를 통해 명성을 얻었고 이후 2002년부터

# 03

## Chapter



2004년까지 디제이 매거진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에도 3위권 안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는 DJ로서 90분간 음악을 플레이하며 본격적인 월드 디제이로서의 경력을 시작한다. 2007년, 세 번째 솔로앨범이 네덜란드 차트 1위, 빌보드 탑 일렉트로닉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으며 2008년에 그래미 상 후보로 오르게 된다. 각종 파티와 페스티벌 공연을 통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자신의 인기를 넓혀나감과 동시에 발매하는 음반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벨리 퍼타도, 콜드 플레이, 고티에와 같은 팝뮤직의 유명 레퍼토리를 포함시키면서 미국 내 인지도를 넓혀나갔다. 2012년에 발매된 [Kaleidoscope]은 아이튠스 차트에서 첫 주에 10위에 랭크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레이블인 블랙홀 레코딩스 산하에 서브 레이블을 두어 후배 디제이들의 음악을 제작하여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티에스토는 2011년에만 2,2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DJ로 등극하게 된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온 대중음악 장르인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면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전설적인 DJ들이 대거 미국으로 진출한다. 기존의 음악을 단순 믹스하는 것을 넘어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프로듀싱과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했는데, 티에스토의 경우에도 일찍이 캐나다 출신의 팝스타인 사라맥클라인이 피쳐링한 일렉트로니카 음악 'Silence'의 리믹스를 통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또한 일렉트로니카 음악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전세계의 소비자에게 활발하게 수용되었는데, 티에스토 역시 서양의 뮤지션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SNS인 MySpace를 통해서 각국의 일렉트로니카 뮤지션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새 곡들을 선보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유럽에서 탈출하여 북미권으로 진출하면서 야외 축제와 파티 공연이 새로운 산업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고 북미권의 많은 팝아티스트들의 싱글 및 앨범 발매 시 전략적으로 일렉트로니카 디제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리믹스 버전을 수록하고 있는 등,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북미권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이 티에스토의 성공 배경인 것으로 분석된다.

# 03 Chapter



## 아바

지역 | 유럽

국가 | 스웨덴

활동 시기 | 1972 ~ 1982



ABBA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Gold / Greatest Hits	앨범	2013	36
Billboard 200	The Best Of ABBA: 20th Century Masters The Millennium Collection	앨범	2011	189
Billboard 200	Gold / Greatest Hits	앨범	2010	63
Billboard 200	The Definitive Collection	앨범	2001	186
Billboard 200	Gold	앨범	1993	63
Billboard 200	The Singles (The First Ten Years)	앨범	1983	62
Billboard 200	The Visitors	앨범	1982	29
Billboard 200	Super Trouper	앨범	1981	17
Billboard 200	Greatest Hits, Vol. 2	앨범	1980	46
Billboard 200	The Music For UNICEF Concert/ A Gift Of Song	앨범	1979	171
Billboard 200	Voulez-Vous	앨범	1979	19
Billboard 200	The Album	앨범	1978	14
Billboard 200	Arrival	앨범	1977	20
Billboard 200	Greatest Hits	앨범	1976	48
Billboard 200	Abba	앨범	1975	174
Billboard 200	Waterloo	앨범	1974	145
Billboard Hot 100	The Visitors	싱글	1982	63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유리권 뮤지션



# 03 Chapter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When All Is Said And Done	싱글	1982	27
Billboard Hot 100	On And On And On	싱글	1981	90
Billboard Hot 100	Super Trouper	싱글	1981	45
Billboard Hot 100	The Winner Takes It All	싱글	1981	8
Billboard Hot 100	Chiquitita	싱글	1980	29
Billboard Hot 100	Angeleyes	싱글	1979	64
Billboard Hot 100	Does Your Mother Know	싱글	1979	19
Billboard Hot 100	Voulez-Vous	싱글	1979	80
Billboard Hot 100	Take A Chance On Me	싱글	1978	3
Billboard Hot 100	The Name Of The Game	싱글	1978	12
Billboard Hot 100	Dancing Queen	싱글	1977	1
Billboard Hot 100	Knowing Me, Knowing You	싱글	1977	14
Billboard Hot 100	Money, Money, Money	싱글	1977	56
Billboard Hot 100	Fernando	싱글	1976	13
Billboard Hot 100	I Do, I Do, I Do, I Do, I Do	싱글	1976	15
Billboard Hot 100	Mamma Mia	싱글	1976	32
Billboard Hot 100	SOS	싱글	1975	15
Billboard Hot 100	Honey, Honey	싱글	1974	27
Billboard Hot 100	Waterloo	싱글	1974	6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유리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아바는 스웨덴 출신의 팝 그룹으로 1972년에 결성되었으며,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뮤지션으로 기록되어 있다. 멤버는 아그네타 펠트스코그(Agnetha Faltskog), 베니 안데르손(Benny Andersson), 뵘 울바에우스(Bjorn Ulvaeus), 아니 프리드 링스타(Anni-Frid Lyngstad)이다.

1972년에서 1982년에 이르기까지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였으며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Waterloo'라는 곡으로 1위를 함으로써 자국인 스웨덴의 첫 우승과 함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출신으로 가장 성공한 그룹이 되었다. 유로비전에서의 우승은 아바에게 스웨덴을 벗어날 새로운 기회였는데 특히 영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 내 대형 음악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75년 유로비전 우승 후 주춤하던 아바는 'I do, I do, I do, I do, I do'를 통해 재도약하게 되고

# 03 Chapter



1975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싱글 'SOS'를 발매하여 영국 차트에 컴백한다. 이 곡은 1975년에 미국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방송된 곡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바의 미국에서의 성공은 싱글에 제한되어 있었다. 1976년, 밴드는 컴필레이션 앨범인 [Greatest Hits]를 발매하여 처음으로 영국 차트 1위, 미국 차트 탑 50에 진입한다. 이 컴필레이션 앨범에는 신곡 'Fernando'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곡은 영국과 호주, 독일을 포함한 1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천만 장이 팔려나갔다. 특히 호주에서는 연속 14주 동안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비틀즈(The Beatles)의 'Hey Jude'와 맞먹는 기록이었다. 승승장구하던 아바를 더욱 더 큰 성공으로 이끈 음악은 바로 'Dancing Queen'이었다. 이 곡은 영국, 독일, 호주와 같이 이미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시장이 아니라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도 1위에 랭크된다. 그때까지도 아바는 전세계의 폭발적인 인기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 'Dancing Queen'이 포함된 네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Arrival]을 통해 비로소 빌보드 200 차트에서 20위까지 오르며 미국 음반 산업협회(RIAA)의 골드 인증을 받게 된다.

아바는 총 3억 7000만 장이 넘는 앨범과 싱글을 판매했으며 여전히 한 해에 수백만 장씩을 팔아치우며 최다음반 판매 뮤지션 목록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또한 아바는 비영어권 출신으로서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그룹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들의 히트곡을 스페인어로 불러 남미에서 역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또한 2010년 3월 15일,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다.

활동 시기인 1972년부터 1982년까지, 아바는 빌보드 핫 100차트의 탑 40 싱글에 14곡을 올려놓았으며 이들 중 10곡은 탑 20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빌보드 200 앨범 차트의 탑 100 안에는 9장의 앨범을 올려놓았고 이들 중 7장이 탑 50에 들어있다. 다섯 장의 앨범이 각각 50만장 이상 팔리면서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판매량 골드에 올랐고 이들 중 세 장은 100만장 이상의 판매로 플래티넘에 오른다. ABBA의 해체 이후에도 베스트 앨범과 관련 상품은 계속해서 엄청난 상품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일례로 원멤버인 베니 안데르손이 참여한 영화 맘마미아는 2008년 흥행 5위를 기록했고 같은 해 출시된 DVD는 영국에서 발매 첫 날 16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최단시간 최다 판매량의 기록을 갖게 되었다. 사운드 트랙 역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500만장 이상이 판매되었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아바의 성공의 배경에는 스웨덴의 음반 레이블인 폴라 뮤직(Polar Music)의 창시자이자 경영자였던 스틱 앤더슨(Stig Anderson)이 있었다. 스틱 앤더슨은 레이블의 소속 송라이터였던 뵤른과 베니를 함께 묶어 두 명의 여성 멤버를 영입하여 그룹을 만들었다. 1973년에 'Ring Ring'이라는 곡을 발표해 유럽과 남아공 등지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스틱 앤더슨은 진정한 성공은 미국과 영국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다.

이후 그룹의 공식 명칭을 ABBA로 변경하고 1974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통해 아바를 국제무대에 알린다. 아바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직후에 발표한 후속곡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원 히트 원더로 남을 위기에 처해지는데 스틱 앤더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아바와 함께 한 해에 서너 곡의 싱글과 한 장 씩의 앨범을 꾸준히 발표하며 성공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다.

특이한 점은, 아바의 멤버 중에는 가족이 있는 멤버도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공연은 꺼려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밴드를 보다 많이 출연시켰고, 이를 통해 아바를 전세계의 팬들에게 밴드를 각인시킬 수 있었다.

# 03 Chapter



## 록시트

지역 | 유럽  
국가 | 스웨덴  
활동 시기 | 1986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Tourism	앨범	1992	117
Billboard 200	Joyride	앨범	1991	12
Billboard 200	Look Sharp!	앨범	1989	23
Billboard Hot 100	Sleeping In My Car	싱글	1994	50
Billboard Hot 100	Almost Unreal (From "Super Mario Bros.")	싱글	1993	94
Billboard Hot 100	Church Of Your Heart	싱글	1992	36
Billboard Hot 100	How Do You Do!	싱글	1992	58
Billboard Hot 100	Fading Like A Flower (Every Time You Leave)	싱글	1991	2
Billboard Hot 100	Joyride	싱글	1991	1
Billboard Hot 100	Spending My Time	싱글	1991	32
Billboard Hot 100	It Must Have Been Love (From "Pretty Woman")	싱글	1990	1
Billboard Hot 100	Dangerous	싱글	1989	2
Billboard Hot 100	Dressed For Success	싱글	1989	14
Billboard Hot 100	Listen To Your Heart	싱글	1989	1
Billboard Hot 100	The Look	싱글	1989	1

# 03

## Chapter



### 아티스트 소개

록시트는 스웨덴 출신의 팝 록 밴드이다. 남성 보컬 겸 기타리스트 페르 게슬레(Per Gessle)와 여성 보컬리스트 마리에 프레드릭손(Marie Fredriksson)으로 이루어진 듀오 그룹이며 1986년에 결성되어 국제적인 인기를 얻었다. 록시트는 영국 탑 40차트와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19회 진입했다. 대표곡으로는 영화 귀여운 여인에 삽입된 'It Must Have Been Love'와 'Listen to Your Heart'가 있는데 이 두 곡은 BMI로부터 400만 라디오 플레이를 기록하며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6천만 장에 가까운 앨범을 판매했다.

록시트가 결성되기 전 프레드릭손과 게슬레는 이미 스웨덴에서 자리를 잡은 뮤지션이었는데, 소속사에서 게슬레를 주축으로 록시트라는 이름을 그룹을 결성한다. 이 시기 록시트는 미국에서 'Teaser Japanese'라는 싱글을 발표하였다. 이 곡은 MTV에서도 공개되지만 대중으로부터의 반응은 미미하였다. 이후 소속사인 스웨덴 이엠아이(EMI)의 매니저 부장이었던 로프 니그렌(Rolf Nygren)의 권유로 프레드릭손과 게슬레의 혼성 듀오팀을 결성되고 86년에 첫 싱글 'Neverending Love'를 발표해 스웨덴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들의 국제적인 성공으로 이끈 앨범은 두 번째 앨범 [Look Sharp]이다. 록시트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데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교환 학생으로 스웨덴에 갔던 한 미국인이 자국에 돌아가 미네아폴리스 방송국의 라디오 KDWB 101.3FM에 록시트의 두 번째 앨범의 수록곡이자 세 번째 싱글인 'The Look' 신청하였고, 곡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전파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크게 히트한다. 이 앨범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장을 팔았으며 이후 발표한 세 번째 앨범 [Joyride]역시 1,0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수록곡인 'Dangerous', 'Fading Like a Flower', 'Dressed for Success' 그리고 'The Centre of the Heart'를 히트시킨다. 이후 공연을 통해 명성을 더 높여가는데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107개국에서 열린 "The Join the Joyride! World Tour 1991/92"콘서트에는 150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모였다고 한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70년대 이후 팝음악으로 성공한 많은 유럽 출신의 뮤지션의 경우, 대부분이 노래를 영어로 불렀다. 북유럽 지역에서 영어는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고 팝의 특성 상 쉬운 가사를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록시트 역시 첫 싱글인 'Neverending Love'에서부터 영어로 노래를 불렀다. 'The Look'이 라디오를 통해 히트하기 전까지는 EMI와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록시트는 북미 마켓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곡을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싱글로 재빠르게 발매하면서 안정되게 북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이후 발매한 싱글과 앨범들도 모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03 Chapter



## 스콜피온스



Scorpions

지역 | 유럽  
국가 | 독일  
활동 시기 | 1965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Sting In The Tail	앨범	2010	23
Billboard 200	Humanity: Hour 1	앨범	2007	63
Billboard 200	Bad For Good: The Very Best Of Scorpions	앨범	2002	161
Billboard 200	Pure Instinct	앨범	1996	99
Billboard 200	Face The Heat	앨범	1993	24
Billboard 200	Crazy World	앨범	1990	21
Billboard 200	Greatest Hits – Best Of Rockers N Ballads	앨범	1989	43
Billboard 200	Greatest Hits – Best Of Rockers N' Ballads	앨범	1989	54
Billboard 200	Savage Amusement	앨범	1988	5
Billboard 200	World Wide Live	앨범	1985	17
Billboard 200	Best Of Scorpions Vol. 2	앨범	1984	175
Billboard 200	Love At First Sting	앨범	1984	6
Billboard 200	Blackout	앨범	1982	10
Billboard 200	Animal Magnetism	앨범	1980	52
Billboard 200	Best Of Scorpions	앨범	1979	180
Billboard 200	Lovedrive	앨범	1979	55



# 03 Chapter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Send Me An Angel	싱글	1991	44
Billboard Hot 100	Wind Of Change	싱글	1991	4
Billboard Hot 100	Rhythm Of Love	싱글	1988	75
Billboard Hot 100	Rock You Like A Hurricane	싱글	1984	25
Billboard Hot 100	Still Loving You	싱글	1984	64
Billboard Hot 100	No One Like You	싱글	1982	65

## 아티스트 소개

스콜피온스는 독일 헤비메탈 밴드로 1965년 기타리스트인 루돌프 쟅커(Rudolf Schenker)가 만든 록 그룹이다. 이들은 198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 'Rock You Like A Hurricane'을 비롯해 'No One Like You', 'Send Me an Angel', 'Still Loving You', 'Wind of Chang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낳았으며 VH1의 100 Greatest Artists of Hard Rock이라는 프로그램에서 46위에 소개되었다.

스콜피온스는 루돌프 쟅커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1970년, 쟅커의 동생인 미하일 쟅커(Michael Schenker)와 클라우스 마이네(Klaus Meine)가 밴드에 들어오면서 초기 밴드의 포맷을 형성한다. 1972년 데뷔 앨범인 [Lonesome Crow]를 발매하고 영국에서 UFO라는 밴드의 오프닝 게스트로 연주하게 되는데 이 공연 후 미하일 쟅커가 UFO에 영입되면서 친구인 울리 로스(Uli Roth)가 빈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이후 밴드는 해체의 위기에 처해지지만 울리 로스와 루돌프 쟅커는 오디션을 통해 나머지 멤버들을 구성하여 스콜피온스라는 예전 이름을 고수한 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서너 장의 앨범을 RCA 레코드를 통해 발매하였는데, 다음 앨범인 [Taken by Force]이 발매되면서 소속사측에서는 음반사와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프로모션에 힘을 주게 된다. 이 앨범의 싱글인 'Steamrock Fever'은 당시 RCA의 라디오 프로모셔널 레코드 중 하나에 포함되어 홍보용으로 적극 사용되었다. 1979년에는 소속사를 미국의 머큐리 레코드(Mercury Records)와 하비스트(Harvest)/EMI 일렉트롤라(Electrola)로 옮겨 미주권을 겨냥한 앨범 [Lovedrive]를 제작한다.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앨범 커버는 1979년 플레이보이지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앨범 커버(Best Album Sleeve of 1979)에 선정된다. 이 앨범은 미국에서 55위에 오르면서 밴드의 국제적 가능성을 증명해준다.

# 03

## Chapter



1984년 스킨피온스는 [Love at First Sting]을 통해 메탈 뮤지션으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다지는 데 이 앨범의 수록곡인 'Rock You Like A Hurricane'은 단 몇 달 만에 미국에서 더블 플래티넘을 달성한다. 이듬해 밴드는 라이브 앨범인 [World Wide Live]를 발매하여 미국 차트 14위, 영국 차트 18위에 오른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스킨피온스의 성공은 70년대 라디오 음악에서 80년대 비디오 음악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미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에서 볼 수 있다. 80년대 이후 MTV가 등장하면서 스킨피온스의 노래들은 뮤직비디오로 제작되는데 이는 앨범이 성공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MTV는 스킨피온스에게 '록의 대사들(The Ambassadors of Rock)'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는 등 밴드의 명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초반에 유럽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에는 메이저 소속사였던 RCA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있었다. 이러한 RCA의 상업적 성공을 뒤로하고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내 새로운 소속사로 옮겨 활동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스킨피온스가 유독 밴드의 탈퇴와 영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스킨피온을 탄생시킨 루돌프 쟁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밴드에 남아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03 Chapter



## 도메니코 모두뇨

지역 | 유럽  
 국가 | 이탈리아  
 활동 시기 | 1953 ~ 1993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Grammy	Nel Blu Dipinito Blu (volare)	싱글	1959	Record of the Year, Song of the Year
Billboard Hot 100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	싱글	1958	1
Billboard 200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 and other Italian favorites	앨범	1958	8
Billboard Hot 100	Piove (Ciao, Ciao Bambina)	싱글	1959	97

### 아티스트 소개

도메니코 모두뇨는 이탈리아의 가수이다. 이 가수의 대표곡은 'Nel Blu Dipinto Di Blu (Volare)'로서 1958년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고 1959년 제 1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레코드 오브 더 이어(Record of the Year),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를 수상하며 그래미 어워즈 역사상 유일한 외국어 곡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칸초네 가수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있던 모두뇨는 'Nel Blu Dipinto Di Blu'를 통해 제 8회 이탈리아의 산레모 뮤직 페스티벌(Sanremo Music Festival)에서 우승하고 1958에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에서 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곡은 아버의 'Waterloo'와 더불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사상 가장 큰 성공을 한 곡이 되었다. 이후 이 곡은 첫 12일 동안 이탈리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유럽권 뮤지션

# 03

## Chapter



아에서만 2만 장이 판매되었고 지금까지는 자국에서만 80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성공을 업고 이 곡은 미국과 유럽에서 히트를 친다. 1958년 8월 23일에 영국에서 발매되어 여덟 개의 버전으로 녹음이 되며 국제적인 성공을 거머쥘다.

미국에서는 빌보드 핫 100에 54위로 진입하였는데 그 다음주에 2위로 뛰어오르며 차트 사상 가장 큰 도약으로 기록되고 있기도 하다. 1958년에만 미국에서 2백만 장이 판매되면서 빌보드 지의 송 오브 더 이어(Song of the Year)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록의 시대에서 비영미권 곡으로서 이런 기록을 달성한 것은 이후에도 1994년 스웨덴 그룹 에이스 오브 베이스(Ace of Base)의 'The Sign' 한 곡 뿐이었다. 이 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되는 이탈리아 곡이며 총 2,200만 장의 녹음 음반을 팔아치웠다. 이후 이 곡은 영화, 스포츠, TV, 광고, 비디오 게임에서 새로운 버전으로 리메이크 되었으며 딘 마틴(Dean Martin), 데이빗 보위(David Bowie),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 리사 오노(Lisa Ono), 집시 킹스(Gypsy Kings) 등 수많은 커버 곡을 남겼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대중음악 시장이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넘어가던 시기, 유럽의 대중음악도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는 유럽에서 있었던 여러 음악 콘테스트들 덕분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후 아바와 같은 대형 가수를 만들어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통해 도메니코 모두뇨의 곡이 국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유럽에서의 인기가 미국에서도 그대로 전해져 제1회 그래미 상을 거머쥔 것이 가장 큰 성공 배경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때 도메니코 모두뇨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3위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미 수상으로 인해 그 어떤 곡들보다도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곡은 영어가 아닌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되어 많은 영어권 가수들이 가사를 붙여 번안곡으로 리메이크하기가 쉬웠고 커버곡들을 통해서 곡의 가치가 지금까지도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 03 Chapter



## 타투

지역 | 유럽  
 국가 | 러시아  
 활동 시기 | 1999 ~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All The Things She Said	싱글	2003	20
Billboard 200	200 KM/H In The Wrong Lane	앨범	2003	13
Billboard 200	Dangerous And Moving	앨범	2005	131

### 아티스트 소개

러시아 걸그룹 타투의 멤버는 율라 볼코바(Yulia Volkova)와 레나 카티나(Lena Katina)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텔레비전 프로듀서인 이반 샤포바로브(Ivan Shapovalov)에 의해 1999년에 기획된 프로젝트성 걸그룹으로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사회주의에서 갓 벗어나기 시작하던 러시아 사회에 반항을 일으키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미권을 겨냥하여 이름을 알파벳으로 지었다.

2000년 라디오를 통해 공개된 타투의 데뷔곡 야 싸실라 스 우마(Ya Soshla s Uma)는 만 회 이상 러시아의 라디오에서 방송되었고 자국에서만 5만 장이 판매된다. 또한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보기 힘들었던 MTV 스타일의 젊고 파격적인 뮤직비디오였는데 이를 통해 젊은 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는다. 2001년, 타투는 유니버설 뮤직 러시아(Universal Music Russia)와 손잡고 첫 정규앨범을 내놓았는데 두 달 만에 50만장을 팔았고 그 해 총 85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한다.

# 03

## Chapter



타투는 2003년 미국에서 자신들의 데뷔곡을 영어로 번안한 'All the Things She Said'를 발표하는데 이 곡은 논란이 많았던 그들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크게 히트했다. 타투는 영어 앨범 세 장, 러시아어 앨범 세 장, 총 여섯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km/h in the Wrong Lane]은 가장 크게 성공하여 IFPI의 유럽 플래티넘 어워드에 두 언어로 된 같은 앨범이 수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2003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3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타투는 1,500만장의 앨범을 팔았으며 러시아어, 영어 버전의 [200km/h]은 최대판매 걸그룹 앨범(the best-selling albums by a girl group)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타투의 성공은 90년대에 소련연방이 붕괴하면서 그동안 사회주의 사회에서 억압되어있던 대중 문화적 타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며 파격적인 컨셉을 취한 데 있다. 타투의 첫 뮤직비디오에서는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영국에서 열리기로 한 콘서트는 미성년자들이 성인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티켓 판매가 저조했고 그에 따라 취소에 이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들을 통한 파격적인 동성애 컨셉은 젊은 층에게 먹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두 여성이 보여주었던 동성애 이미지는 완전한 컨셉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타투는 완전한 프로젝트형으로 오디션을 통해 데뷔한 걸그룹이고 시간이 지나 그룹이 해체되었을 때 뮤지션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2008년 제작된 그룹이 아닌 뮤지션임을 어필하며 돌아왔지만 결국 이전에 가졌던 걸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는 데는 실패했다.



# 03 Chapter



## 에이스 오브 베이스

지역 | 유럽  
 국가 | 스웨덴  
 활동 시기 | 1987 ~ 현재



Ace of Base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Cruel Summer	앨범	1998	101
Billboard 200	The Bridge	앨범	1995	29
Billboard 200	The Sign	앨범	1993	1
Billboard Hot 100	Cruel Summer	싱글	1998	10
Billboard Hot 100	Whenever You re Near Me	싱글	1998	76
Billboard Hot 100	Lucky Love	싱글	1996	30
Billboard Hot 100	Beautiful Life	싱글	1995	15
Billboard Hot 100	Don t Turn Around	싱글	1994	4
Billboard Hot 100	Living In Danger	싱글	1994	20
Billboard Hot 100	The Sign	싱글	1994	1
Billboard Hot 100	All That She Wants	싱글	1993	2

### 아티스트 소개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요나스 베르그렌(Jonas Berggren), 제니 베르그렌(Jenny Berggren), 린 베르그렌(Linn Berggren) 그리고 울프 에프베르크(Ulf Ekberk)로 구성된 스웨덴의 팝 그룹이다. 1993년에서 2002년 사이 네 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하였고 총 3천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들은 아바(ABBA)와 록시트(Roxette)이후 가장 성공한 스웨덴 밴드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의 앨범 중에서 [Happy Nation]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데뷔앨범이며 미국에서 아

# 03 Chapter



홉 번째 플래티넘을 인증 받았다. 이 앨범에 수록된 'All that she wants', 'The sign', 'Don't turn around' 세 곡 모두 빌보드 메인스트림 탑 40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팀 결성과 동시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결성 초기에 보냈던 데모 앨범에 관심을 보이는 레이블은 없었고 덴마크의 인디레이블인 메가 레코드(Mega Records)만이 1992년 그들의 싱글 'Wheel of Fortune'을 발매하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그해 큰 인기를 끌었던 나이지리아계 스웨덴 팝가수 카요(Kayo)의 음악을 듣고 그녀의 노래와 비슷한 사운드를 구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Mr Ace'라는 제목으로 데모곡을 만들어 프로듀서인 데니스 팝(Denniz Pop)에게 보내는데 이 곡이 이후 덩과 레게 풍의 팝이자 이들의 대표곡인 'All That She Wants'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겨냥해 메가 레코드에서 몇 주 만에 발매된 첫 앨범 [Happy Nation]은 처음 덴마크에서 히트하며 조금씩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몇 주 후 'All That She Wants'가 스웨덴 차트에서 3위를 차지하고 독일에서는 8주간 1위에 머무른다. 메가 레코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진출은 쉽지 않았는데, 이들이 미국의 관련인들에게 이 곡을 소개할 때마다 "미국 시장에선 먹히지 않을 것이다(This band will never work in the States)"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소니계열의 아리스타 레코드(Arista Records)의 클라이브 데이비스(Clive Davis)는 이 곡을 들여와 1993년 말 빌보드 핫 100의 2위에 올려놓는다. 이후 데이비스는 'The Sign'과 같은 새 싱글을 차트에 올려놓았고 이 신곡들과 함께 미국 버전의 [Happy Nation]이라는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이 앨범은 전 세계 1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총 2,3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 이 그룹은 자국인 스웨덴에서만큼은 유독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1995년에 와서야 싱글 'Lucky Love'를 차트 1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 곡이 수록된 [The Bridge] 앨범은 14개국에서 플래티넘을 기록했지만 첫 앨범만큼의 성공은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몇 년의 공백기를 가진 후 1998년, 라디오를 통해 전파된 'Life is a Flower'을 발표하는데 이 싱글은 영국에서 25만장이 판매되었는데 "너무 유럽적"이라는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의견에 따라 미국을 겨냥한 'Cruel Summer'을 발매하여 4년 만에 다시 미국 탑 텐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초기만큼 성공을 거둔 작품을 다시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성공은 2000년대의 많은 팝 가수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레이디 가가(Lady Gaga)와 케이티 페리(Katy Perry)는 공개 석상에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를 언급하였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성공 역시 그 배경에는 현지의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던 제작자가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 내 유행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사운드의 가능성을 잘 잡아냈던 클라이브 데이비스 같은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다. 이것을 반증하는 일례로, 2000년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미국에서 베스트 음반인 [Greatest Hits]를 발매했는데 홍보의 부재로 앨범과 싱글이 차트 진입에 완전히 실패하고 첫 주에 5000도 채 팔리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Arista Records와의 계약을 끝냈으며 해당 앨범은 재발매 되지 않았다. 이후에 발매한 앨범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영미권에서는 발매되지 못하는 등 영미권 현지 프로듀서의 부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유럽권 뮤지션

# 03 Chapter



Daft Punk

## 다프트 펑크

지역 | 유럽

국가 | 프랑스

활동 시기 | 1993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Get Lucky	싱글	2013	3
Billboard Hot 100	One More Time	싱글	2001	61
Billboard Hot 100	Around The World	싱글	1997	61
Billboard 200	Discovery	앨범	2013	44
Billboard 200	Homework	앨범	2013	150
Billboard 200	Random Access Memories	앨범	2013	1
Billboard 200	Tron: Legacy (Soundtrack)	앨범	2012	4
Billboard 200	Tron: Legacy Reconfigured	앨범	2011	16
Billboard 200	Tron: Legacy (Soundtrack)	앨범	2010	4
Billboard 200	Alive 2007	앨범	2008	169
Billboard 200	Human After All	앨범	2005	98
Billboard 200	Discovery	앨범	2001	44
Billboard 200	Homework	앨범	1997	150
Grammy	Alive 2007		2008	Best Electronic/ Dance Album
Grammy	Around the World/Harder Bette		2008	Best Dance Recording

# 03 Chapter



## 아티스트 소개

다프트 펑크는 프랑스 출신의 일렉트로니카 디제이 듀오다. 멤버는 토마스 방 갈테르(Thomas Bangalter)와 기-마누엘 드 오맹-크리스토(Guy-Manuel de Homem-Christo)이며 항상 헬멧을 쓰고 있어 실제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다.

다프트 펑크는 90년대 프랑스 내의 하우스 물결을 타고 하우스 음악에 신스팝을 가미한 '프렌치 하우스' 스타일을 표방하여 큰 성공을 거둔다. 1996년 법대 학생이었던 페드로 윈터(Pedro Winter)에게 자신들의 매니지먼트를 부탁하는데 이 페드로 윈터는 후에 Head Banger Entertainment를 설립하고 소속 레이블인 Ed Banger Records를 설립하여 유수의 프렌치 하우스 디제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페드로 윈터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다프트 펑크의 매니저를 맡았다.

다프트 펑크의 원래 이름은 Darkin'이었는데 1997년에 첫 앨범인 [Homework]을 공개하며 이름을 다프트 펑크로 변경한다. 2001년에 발매된 [Discovery] 앨범은 클럽 신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수록곡인 'One more Time', 'Digital Love',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들이 모두 히트하면서 영국 차트 2위를 기록한다. 이 중 'One More Time'은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당시의 클럽 파티를 강타한다. 또한 'Face to Face'는 싱글 앨범이 미국에서는 발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럽가에서 큰 인기를 누린다.

2005년 [Human After All]이라는 음반을 발매하고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적어도 수록곡이었던 'Robot Rock', 'Technologic'만큼은 영국 등지에서 크게 성공한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의 투어를 통해 라이브 앨범인 [Alive 2007]을 발매하고 같은 해 그래미 어워즈에서 일렉트로닉/댄스 앨범 최우수상(Best Electronic/Dance Album)을 수상한다. 2010년에는 영화 Tron: Legacy의 사운드트랙을 작곡하였으며 영화 개봉과 동시에 앨범을 발매했다.

2013년이 되기 전까지 다프트 펑크는 디제이 전문 잡지인 DJ Magazine과 Mixmag에서 꾸준히 베스트 디제이 100선에 선정되었다. 2013년 1월 다프트 펑크는 소니 뮤직 계열의 콜롬비아 레코드로 소속사를 옮긴다. 이 미국계 메이저 레이블은 다프트 펑크에게 또 다른 성공을 안겨준다. 앨범 발매 이전에 미국의 유명 코메디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를 통해 15초간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고 그후 20일 후에는 아이튠스에서 선주문이 시작되었다. 그 후 두 달이 지난 5월 21일에 [Random Access Memories]가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16mm 시리즈 다큐멘터리 영상의 형식으로 공개되었다. 이 앨범의 대표곡인 'Get Lucky'는 2013년 4월 영국 차트에서 4주간 1위를 차지했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현재까지 가장

# 03

## Chapter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기록되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다프트 펑크는 다른 유럽의 디제이들과는 다르게 밴드 음악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신스팝과 하우스 음악을 접목하여 대중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프렌치 하우스라는 장르를 선보인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 이 프렌치 하우스는 이후 일렉트로니카 씬에서도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다프트 펑크와 오랫동안 함께 해 온 페드로 윈터의 에드 뱅어스 레이블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다프트 펑크의 성공은 클럽이 대중음악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럽에서는 예견된 것이었으나 북미권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 다프트 펑크는 분명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였으나 그들이 완벽히 대중음악 전체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온 것은 콜롬비아 레이블과 계약을 맺은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미국의 메이저 레이블은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렉트로니카 음악의 대중적 가능성을 간파하고 다프트 펑크에 2000년 이후 미국의 대중음악 트렌드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하나인 패럴(Pharrell)을 접목시켜 유럽과 미국이 복합된 사운드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홍보 방법과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미국 방송 중 하나인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이용한 것 모두 댄스 씬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마음을 모두 잡겠다는 소속사의 의도였다고 보여진다.



# 03 Chapter



David Guetta

## 다비드 게타

지역 | 유럽

국가 | 프랑스

활동 시기 | 1984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Love is gone	싱글	2008	98
Billboard hot 100	When love takes over	싱글	2009	77
Billboard hot 100	Sexy Chick	싱글	2009	5
Grammy	When love takes over	싱글	2009	Best Remixed Recording, Non-Classical
Billboard 200	One love	앨범	2010	70
Billboard hot 100	Who's that Chick	싱글	2010	51
Billboard hot 100	Memories	싱글	2010	46
Billboard 200	One more love	앨범	2011	113
Billboard 200	Nothing but the beat	앨범	2011	5
Billboard 200: The Electronic Album	Nothing but the beat	앨범	2011	163
Billboard hot 100	Without you	싱글	2011	4
Billboard hot 100	Where them girls at	싱글	2011	14
Billboard hot 100	Turn me on	싱글	2011	37
Billboard hot 100	nlight of your life	싱글	2011	81
Billboard hot 100	little bad girl	싱글	2011	70
Billboard 200	Nothing but the beat	앨범	2012	5

# 03 Chapter



Billboard hot 100	without you	싱글	2012	4
Billboard hot 100	turn me on	싱글	2012	4
Billboard hot 100	titanium	싱글	2012	7
Billboard hot 100	I can only imagine	싱글	2012	44
Grammy	Sunshine	싱글	2012	Best Dance Recording nominee
Billboard 200	Nothing but the beat	앨범	2013	5
Billboard hot 100	Play hard	싱글	2013	64

## 아티스트 소개

다비드 게타는 프렌치 하우스 프로듀서 겸 디제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나이트클럽의 디제이로 일하였고 자신이 공동으로 세운 검 프로덕션(Gum Production)을 통해 첫 싱글 'Just a Little More Love'를 발매하였다. 2002년 버진레코드(Virgin Records)를 통해 발매된 데뷔 앨범 [Just A Little More Love]는 30만 장 이상이 판매되었다. 이후 꾸준히 페스티벌에서 플레이한 곡을 컴필레이션으로 녹음하였고 그 중간에 자신의 싱글을 발매하였다.

2007년에 발매한 세 번째 앨범 [Pop Life]는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둬 약 53만장을 판매했고 타이틀곡인 'Love is Gone'은 미국 댄스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빌보드 핫 100에 처음으로 진입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앨범 프로모션을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공연을 했는데 2008년 프랑스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에는 티에스토(Tiesto), 칼 콕스(Carl Cox), 마틴 솔베이지(Martin Solveig) 등과 라인업에 올라 40,000여 명의 군중 앞에서 플레이를 펼친다. 2009년, 그는 디제이 매거진 최고의 디제이 100(Top 100 DJs)에서 3위에 랭크되었고 2008년 디제이 어워드에서 베스트 하우스 디제이(Best House DJ)로 선정된다.

전 세계에서 DJ로서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중 2009년에 네 번째 정규앨범인 [One Love]를 발매하였고 이 앨범의 첫 싱글이자 미국의 여가수 Kelly Rowland가 피처링한 'When Love Takes Over'은 영국차트에서 1위를 기록함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얻게 되고 2011년 5월 기준으로 이 앨범은 약 3백만 장이 판매된다. 그해 6월 블랙 아이드 피스(The Black Eyed Peas)는 그가 프로듀스 한 'I Gotta Feeling'을 타이틀 곡으로 한 앨범인 [The E.N.D.]는 미국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곡이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다비드 게타의 성공은 프렌치 하우스가 갖고 있는 특성에 있는데, 다른 장르에 비해 팝과의 공동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다. 즉, 다비드 게타는 첫 싱글부터 미국의 유명 가수 크리스 윌리스(Christ Willis)를 피처링으로 사용하여 가사가 분명히 들어간 댄스 음악을 발표했고, 이후에 성공을 거둔 싱글도 에이콘(Akon), 에스텔(Estelle), 퍼기(Fergie), 엘엠파오(LMFAO) 등 당시 메이저급이었던 팝스타들을 피처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이다. 예전의 프로듀서들이 가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존재는 물밑에 묻어둔 것이었다면 이런 유럽 출신의 디제이들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빌어 자신의 곡을 수많은 페스티벌에서 플레이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디제이 겸 프로듀서의 상업적 가치를 크게 높이고 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유럽권 뮤지션

# 03 Chapter



## 힘

지역 | 유럽  
국가 | 핀란드  
활동 시기 | 1991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Tears On Tape	앨범	2013	15
Billboard 200	Screamworks: Love In Theory And Practice, Chapters 1-13	앨범	2010	25
Billboard 200	Digital Versatile Doom: Live At The Orpheum Theatre	앨범	2008	168
Billboard 200	Venus Doom	앨범	2007	12
Billboard 200	Dark Light	앨범	2005	18
Billboard 200	Love Metal	앨범	2005	117
Billboard 200	Deep Shadows And Brilliant Highlights	앨범	2004	190
Billboard Hot 100	Wings Of A Butterfly	싱글	2006	97

### 아티스트 소개

힘은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록밴드이다. 1991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빌레 발로(Ville Valo), 미코 린드스트롬(Mikko Lindstrom), 미코 파나넨(Miko Paananen), 미카 카르피넨(Mika Karppinen), 제인 퍼티넨(Janne Puurtinen)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여덟 장의 정규 음반을 발매했는데 그 중 여섯 번째 음반인 [Dark Light]은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음으로써 미국에서 골드 앨범을 가진 첫 핀란드 밴드가 되었다. 정규 앨범 중 다섯 장의 앨범은 핀란드에서 플래티넘을 기록하기도 했다.

# 03

## Chapter



1996년 데뷔 EP앨범 [666 ways to Love: Prologue]를 핀란드에서 발매하였는데 초기에는 1000장만 발매되었다. 1997년에 정규 앨범을 발매하고 조금씩 자국 록 씬에서 인지도를 넓혀갔으며 1999년에 발매된 두 번째 앨범인 [Razorblade Romance]에 수록된 'Join Me in Death'를 통해 독일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두 달 동안 5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독일에서의 성공을 발판삼아 록 씬이 더 크고 강한 독일에서 싱글을 몇 장 더 발표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드디어 2002년 미국에서 [Razorblade Romance]를 발매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진출에 나선다. 2003년에 발매된 [Love Metal]을 통해 미국에서의 인기를 키워 나가는데 유명한 스케이트 보더이자 방송인인 뱀 마제라(Bam Magera)가 밴드의 트레이드 마크인 하타그램(Heartagram) 로고를 사용하며 MTV 시리즈인 비바 라 뱀(Viva La Bam)에서 밴드를 홍보한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록 마니아층의 인지도를 쌓아가던 HIM은 2005년 다섯 번째 정규 앨범 [Dark Light]을 발매하면서 처음으로 빌보드 200의 20위권 내에 진입한다. 이 앨범의 성공은 밴드의 이전 앨범을 빌보드에 올려놓는 데도 영향을 끼치며 미국에서 5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최초의 핀란드 밴드라는 영광을 갖게 된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독일이나 북구, 동구권 이외에도 미국의 탄탄한 메탈 록 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록 마니아였던 MTV의 뱀 마제라의 공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는 HIM의 로고를 문신하고 TV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팬임을 자처하며 홍보하였는데, 이 외에도 MTV 방송인 출신의 유명 타투이스트인 케이티 본 디(Katy von D) 역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이들의 대중적인 성공에 한 몫 하였다. 음악적인 면에서 HIM의 곡들은 메탈과 팝, 얼터너티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서정성이 살아있으면서도 록에서 추구하는 고딕(Gothic)적 분위기를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으며 일관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앨범들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성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03 Chapter



## 4. 남미권 뮤지션

-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를 생각해 보면 남미권에서의 미국 진출은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사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
  - 이미 20년대부터 뉴욕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살사(Salsa) 계열들이 미국에서 유행했었고, 미국 국적을 가진 2세대 및 3세대 히스패닉들은 남미 본토의 음악보다 미국에서 생성된 남미풍 음악을 더 많이 소비함.
  - 이러한 음악의 상업적 성공 역시 본토 출신보다는 미국 출신의 라틴계 음악가들이 미국 주류 시장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본토의 음악이 미국에 상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특히 남미는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만 거대한 지리 때문에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본토 출신의 음악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음
  - 미국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보다는 중미인 멕시코와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 리코, 콜롬비아 등의 음악이 더 큰 성공을 얻게 됨
- 미국 내 라틴계 뮤지션 역시 카리브 국가 이민자들이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플로리다와 뉴욕 출신으로 모국이 가진 문화적 특성에 더 큰 호감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보다는 쉽게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을 것임
  - 이런 대표적인 뮤지션이 푸에르토 리코 출신의 가수 대디 양키(Daddy Yankee)인데 그는 카리브 해 음악 양식인 레게에 미국 힙합 스타일의 스페니시 랩을 결합한 레게톤(Raeggaeton)이라는 새로운 댄스 음악 장르를 선보였고, 비슷한 종류의 음악을 하던 미국의 히스패닉 뮤지션들의 지지로 어렵지 않게 음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
  - 비슷한 경우로 콜롬비아의 후아네스(Juanes)는 미국 진출 당시 엔리케 이글레시아(Enrique Iglesias)와 훌리오 이글레시아(Julio Iglesias)의 매니저였던 페르난 마르티네즈(Fernan Martinez)와 같은 미국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던 뛰어난 매니저를 만나 안정된 방법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함



# 03

## Chapter



- 아이러니하게 미국내 히스패닉 뮤지션들이 미국팝 양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민족적 유산을 차용하여 음악을 만들어내는 경우보다 남미 본토에서 미국식 팝이나 록을 듣고 자라 북미 음악을 지향하던 남미 출신의 뮤지션들도 보임
  - 콜롬비아의 샤키라(Shakira)는 데뷔 당시부터 캐나다의 여가수 엘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을 벤치마킹하였고 미국 진출 당시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즐기기 위해 금발로 염색하여 활동했음
- 남미 출신의 뮤지션들의 성공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있는데 바로 축구임.
  - 북미 진출 이전에 유럽에서 성공하게 된 사례들 중 다수가 축구 문화와 관련이 있음
  - 푸에르토 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팝가수 리키 마틴(Ricky Martin)은 1992년에 있었던 프랑스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노래를 부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음
  - 샤키라의 경우에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위해 발매된 FIFA의 음반에 수록된 자신의 곡인 'Waka Waka'가 유튜브에서 5억뷰를 넘기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인기를 증명함
- 남미에서도 브라질의 경우에는 월드컵 마켓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임. 그러나 월드컵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서 대중음악 시장으로는 쉽사리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 틀을 깬 것이 60년대 보사노바 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세르지오 멘데스(Sergio Mendes)임
  - 브라질의 대중음악은 최근에 와서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주목 받고 있는데 2010년 이후 남미 전체에서 빌보드에 핫 200에 처음 진입한 곡이 바로 브라질 곡이기 때문임
  - 미첼 텔로(Michel Telo)라는 이름의 젊은 가수는 20년대 브라질 음악에 현대식 분위기를 가미했고 가벼운 안무를 곁들였는데 이 안무가 유럽 내에서 활동하던 라틴계열 축구 선수들의 세레모니에서 단골로 사용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름. 또한 한 번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산업 분야를 통해 큰 홍보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03 Chapter



## 후안 루이스 게라



Juan Luis Guerra

지역 | 남미  
국가 | 도미니카 공화국  
활동 시기 | 1984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Para Ti	앨범	2004	110
Billboard 200	La Llave De Mi Corazon	앨범	2007	77
Billboard 200	A Son De Guerra	앨범	2010	52
Billboard 200	Asondeguerra Tour	앨범	2013	80

### 아티스트 소개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후안 루이스 게라(Juan Luis Guerra)는 싱어송 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이다. 라틴 그래미 어워즈(Latin Grammy Awards)에서 2010년 세 개 부문 수상을 비롯해 총 15회 수상하였다. 라틴 음악인 메렝게(Merengue)와 볼레로(Bolero)를 기본으로 아프로팝(Afro-pop), 라틴퓨전(Latin fusion) 음악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전통 음악인 바차타(Bachata)의 리듬을 그의 음악에 차용하고 있다.

후안 루이스 게라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음악 대학에서 재즈 컴퍼지션(Jazz Composition)으로 학위를 받은 후 자국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1990년, 느린 멜로디의 'Ojala que llueva café'가 남미 전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1991년에 발매한 다음 앨범인 [Bachata Rosa]를 통해 처음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앨범은 당시 500만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으며 미국 내에서 플래티넘 라틴음반으로 기록된다. 1998

# 03

## Chapter



년에 발매한 [Ni es lo mismo ni es igual]이 두 번째 플래티넘 라틴음반이 되고, 2004년 발매한 [Para ti]가 빌보드 200에 108위까지 올라서면서 세 번째 플래티넘을 기록한다. 2007년 발매한 [La llave de mi corazon]이 빌보드 200에서 77위를 기록하고 2010년의 [A son de Guerra] 역시 플래티넘을 기록하면서 미국계 히스패닉이 아닌 본토계의 라틴 재즈 팝을 구사하는 뮤지션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후안 루이스 게라의 성공은 라틴 음악과 미국식 팝을 절묘히 섞은 데 있다. 이는 미국에서 자생한 살사계 음악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실제 남미에서 인기가 많은 음악 중에서도 미디엄 혹은 슬로우 템포의 메렝게와 볼레로에 미국에서의 공부를 바탕으로 한 재즈를 섞어 새로운 라틴 재즈 팝을 구사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안 루이스 게라는 트로피컬 메렝게(Tropical Merengue) 부문뿐만 아니라 베스트 가스펠 팝(Best Gospel Pop) 부문에서도 수상을 해 히스패닉만을 위한 라틴 음악이라는 범주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마나

지역 | 남미  
국가 | 멕시코  
활동 시기 | 1978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Suenos Liquidos	앨범	1997	67
Billboard 200	MTV Unplugged	앨범	1999	83
Billboard 200	Revolucion De Amor	앨범	2002	22
Billboard 200	Eclipse	앨범	2003	181
Billboard 200	Amar Es Combatir	앨범	2006	4
Billboard 200	Arde El Cielo	앨범	2008	30
Billboard 200	Drama y Luz	앨범	2011	5
Billboard 200	Exiliados Es La Bahia: Lo Mejor de Mana	앨범	2012	80
Billboard Hot 100	Labios Compartidos	싱글	2006	82

### 아티스트 소개

마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미 출신의 록밴드이다. 마나는 네 개의 그래미를 비롯해 일곱 개의 라틴 그래미 어워즈, 다섯 개의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라틴 아메리카(MTV Video Music Awards Latin America)를 수상하였다. 1978년에 결성되어 1992년에 발매한 [Donde jugaran los niños] 앨범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3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페인어 록 음반으로 알려져 있다.

# 03

## Chapter



이후 17개국을 돌며 268회의 순회공연을 가지면서 인지도를 더욱 넓혀갔다. 1999년, 라틴 아메리카 엠티비 언플러그드 프로그램을 통해 녹음된 음반이 발매되고 그 해 여름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와 함께 18개 도시의 순회공연을 가진다. 또한 같은 해 발매된 산타나의 앨범 [Supernatural]에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이탈리아 시장을 겨냥해 주케로(Zucchero)와 함께 연주한 'Eres mi Religion'의 새 버전을 발매하였는데 같은 해에 있었던 파바로티와 친구들(Pavarotti & Friends) 공연에서 퀸(Queen), 딥퍼플(Deep Purple), 리키 마틴(Ricky Martin),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 보노(Bono) 등과 함께 연주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 발매한 [Amar es Combatir]는 첫 주 빌보드 탑 200에 4위로 올라섰고 첫 주에만 6만장, 총 64만4천 장의 판매고를 올린다. 2011년에 발매한 [Drama y Luz]음반 역시 빌보드 탑 200에서 5위를 차지하며 지금까지도 명실공히 남미 최고의 록밴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남미에서도 월드 음악계열이 아닌 정통 록계열의 음악이 매우 많으나 마나와 같이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안드레스 칼라마로(Andres Calamaro)나 찰리 가르시아(Charly Garcia)는 남미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로커로 꼽히지만 영미권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반면, 마나는 본토에서 가까운 멕시코라는 지리적 이점을 안고 처음부터 인디 레이블이 아닌 폴리그램, 워너 뮤직과 계약을 맺고 수백 회의 공연을 통해 충실하게 스페인어 권에서의 인기를 쌓았으며, 라틴 빌보드 차트에서 성공하자 곧바로 미국 투어를 통해 인지도를 넓혀나갔다. 또한 산타나와 같은 미국 출신의 대형 히스패닉 뮤지션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북미 내 명성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환경보호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이나 정치적 활동(2012년 오바마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남미와 카리브해 섬 국가들의 주권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왔다)을 통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03 Chapter



## 후안 가브리엘



Juan Gabriel

지역 | 남미  
국가 | 멕시코  
활동 시기 | 1971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Juan Gabriel	앨범	2010	133
Billboard 200	Los Gabriel...Cantan A Mexico	앨범	2008	119
Billboard 200	La Historia Del Divo	앨범	2006	92
Billboard 200	Juntos Otra Vez	앨범	1997	152

### 아티스트 소개

후안 가브리엘은 멕시코 출신의 가수 겸 작곡가이며 본명은 알베르토 아길레라 발라데스 (Alberto Aquilera Valades)이다. 음악 학교 출신으로 멕시코 RCA사에서 코러스 작곡 아르바이트 생으로 경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RCA의 프로듀서였던 엔리케 오카무라(Enrique Okamura)를 통해 가이드 녹음을 하게 되고 1971년, 21살 되던 해에 RCA의 또 다른 프로듀서인 에두아르도 마가야네스(Eduardo Magallanes)를 통해 첫 음반 계약을 하게 되면서 후안 가브리엘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정규 앨범 15장을 포함해 약 50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정규앨범은 3000만장, 참여한 음반을 모두 포함하면 약 1억장의 앨범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앨범뿐 아니라 유수의 라틴 가수들을 위해 마리아치(Mariachi), 발라드(Ballad), 팝(Pop), 록(Rock), 디스코(Disco)를 넘나들며 1000장이 넘는 곡을 만들었다. 여섯 차례 그래미 어워즈에 후보로 올랐으며 2002년에는 빌보드 어워즈의 네 부분에서 수상하였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후안 가브리엘의 가장 큰 성공 배경은 가수가 아닌 작곡가로서 여러 유명 라틴 팝을 작곡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5년,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작곡가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듬해 빌보드지에 의해 빌보드 라틴 뮤직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된다. 1986년 로스 앤젤레스 시의 시장인 톰 브래들리(Tom Bradley)는 10월 5일을 “후안 가브리엘의 날(The Day of Juan Gabriel)”로 지정하였고, 그의 이름은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기록되어 있다. 즉, 그는 미국 내 많은 히스패닉들에게서 사랑을 받은 가수들의 곡을 직접 작곡함으로써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였고 멕시코를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미첼 텔로

지역 | 남미  
국가 | 브라질  
활동 시기 | 1998 ~ 현재



Michel Telo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Ai se eu te pego	싱글	2012	81

### 아티스트 소개

마이클 텔로는 세르지우 멘데스 이후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첫 브라질 출신의 가수이다.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 전통 음악을 공부하였고 1997년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루포 트라디시아 옹(Grupo Tradicao)라는 밴드에 들어가 2008년까지 리드보컬로 활동하였다. 2009년, 브라질 레이블 썸 리브르(Som Livr)를 통해 첫 앨범인 [Balada Sertaneja]를 발표하면서 브라질 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다. 브라질 지역 음악인 세르타네하(Sertaneja)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이 앨범과 이후에 발매한 라이브 앨범은 미첼 텔로에게 브라질 골드 디스크 상을 안겨주었다. 2011년, 2회에 걸쳐 열린 콘서트에서는 50,000명의 관객이 들어섰고, 2011년 한 해 동안 열린 240회의 콘서트에 참석한 총 관객 수는 1,700만 명, 총 수익은 1,8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그의 대표곡인 'Ai Se Eu Te Pego'는 2008년에 창작된 곡으로 이후 많은 브라질 가수들의 커버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으나 그 중에서도 미첼 텔로가 부른 버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기록하며 영어 버전인 'Oh, If I Catch You!'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발매되기도 하였다. 동시에 이 곡은 브라질, 남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에서 각각 차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 Chapter



트 1위에 올랐으며 빌보드 라틴 차트와 라틴 팝 송 차트 1위, 빌보드 핫 100 차트 81위를 기록한다. 이 곡은 2012년 기준으로 총 7천2백만 장이 판매되어 그 해 여섯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로 기록되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디지털 음원이 되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미첼 텔로는 2000년대 이후 데뷔하여 가장 성공한 비영어권 가수 중 하나가 되었는데, 그 성공에는 아주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 브라질과 남미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던 'Ai Se Eu Te Pego'의 안무를 유럽의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따라한 것이다. 세계적인 프로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Cristiano Ronaldo)를 비롯한 브라질, 남미 출신의 축구 선수들이 스페인, 폴란드, 독일, 영국 리그에서 활동하며 시합 중에 세레모니로 이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안무를 따라하면서 특별한 마케팅 없이 급속도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게다가, 브라질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반면, 외모는 모던하고 깔끔한 백인 이미지였던 미첼 텔로는 여성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트로피컬한 지역 사운드가 모던한 가수에 의해서 재탄생되고 유명인들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것이다. 얼마 전 미첼 텔로의 소속사는 세르타네호(Sertanejo)사운드의 새로운 남성 솔로를 데뷔시켰는데 중독성 있는 후렴구, 따라하기 쉬운 안무, 아코디언을 포함한 전통적인 빅밴드라는 구성을 그대로 따라하였고 이 곡 역시 브라질과 남미, 유럽에서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세르지우 멘데스

지역 | 남미  
국가 | 브라질  
활동 시기 | 1961 ~ 현재



Sergio Mendes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Mas Que Nada	싱글	1966	47
Billboard 200	Sergio Mendes & Brasil '66	앨범	1966	7
Billboard Hot 100	Constant Rain (Chove Chuva)	싱글	1967	71
Billboard Hot 100	For Me	싱글	1967	98
Billboard Hot 100	Night And Day	싱글	1967	82
Billboard 200	Equinox	앨범	1967	24
Billboard Hot 100	Scarborough Fair	싱글	1968	16
Billboard Hot 100	The Fool On The Hill	싱글	1968	6
Billboard Hot 100	The Look Of Love	싱글	1968	4
Billboard 200	Look Around	앨범	1968	5
Billboard 200	Sergio Mendes' Favorite Things	앨범	1968	197
Billboard Hot 100	(Sittin' On) The Dock Of The Bay	싱글	1969	66
Billboard Hot 100	Pretty World	싱글	1969	62
Billboard Hot 100	Wichita Lineman	싱글	1969	95
Billboard 200	Crystal Illusions	앨범	1969	33
Billboard 200	Fool On The Hill	앨범	1969	3
Billboard 200	Greatest Hits	앨범	1970	101
Billboard 200	Ye-Me-Le	앨범	1970	71
Billboard 200	Pais Tropical	앨범	1971	166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Stillness	앨범	1971	130
Billboard 200	Primal Roots	앨범	1972	164
Billboard 200	Love Music	앨범	1973	116
Billboard 200	Vintage 74	앨범	1974	176
Billboard 200	Homecooking	앨범	1976	180
Billboard 200	Sergio Mendes And The New Brasil '77	앨범	1977	81
Billboard Hot 100	Never Gonna Let You Go	싱글	1983	4
Billboard Hot 100	Rainbow's End	싱글	1983	52
Billboard 200	Sergio Mendes	앨범	1983	27
Billboard Hot 100	Alibis	싱글	1984	29
Billboard Hot 100	Olympia	싱글	1984	58
Billboard 200	Confetti	앨범	1984	70
Billboard 200	Timeless	앨범	2006	44
Billboard 200	Encanto	앨범	2008	60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세르지우 멘데스는 영미권에서 가장 유명한 브라질 출신의 음악가이며, 보사노바를 바탕으로 재즈와 펑크를 넘나들며 55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하였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클래식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어린 세르지우는 1950년 보사노바가 태동하던 시절 나이트 클럽에서 보사노바(Bossanova)와 삼바(Samba)가 가미된 재즈를 연주하면서 실력을 쌓았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ntonio Carlos Jobim)이나 브라질에서 투어 공연을 하던 많은 미국 출신의 재즈 뮤지션과 함께 공연하며 국제적인 음악 감각을 익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 브라질에서 섹스테토 보사 리우(Sexteto Bossa Rio)를 결성하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순회공연을 가지다가 196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영미권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연주곡 중심이었던 재즈풍의 보사노바에 보컬이 들어간 곡을 본격적으로 작곡하며 브라질 66과 같은 보컬 그룹을 결성하였고 팝이 섞인 대중적인 스타일로 히트곡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텔레비전 쇼에서도 자주 공연을 펼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70년대 이후에는 브라질 출신의 포스트 보사(Post Bossa) 음악과 미국의 팝 음악의 콤비네이션을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유명한 알앤비 싱어송 라이터인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알앤비 풍의 곡을 발표하기도 한다.

# 03

## Chapter



2000년 이후에도 후배가수들과 자신의 곡을 리메이크한 [Timeless] 앨범을 발매했고, 이 앨범에 수록된 블랙아이드피스(The Black Eyed Peas)의 'Mas Que Nada'는 각종 유럽 차트를 석권하는 동시에 영국 차트에서도 발매 두 주 만에 6위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하였다. 당시 가장 잘나가던 그룹인 블랙아이드피스와 브라질 음악의 거장이 만나 시너지가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세르지우 멘데스는 가장 최근 앨범인 [Bom Tempo]에서 유명 디제이들과 함께 자신의 곡들을 파격적인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로 변모시키면서 장르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브라질의 보사노바는 미국에서 재즈나 라운지에 가까운 음악으로 알려지면서 월드 뮤직이나 재즈 계열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세르지우 멘데스만큼은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은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이는 자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미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팝에 가까운 사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며, 당시 미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연을 펼친 것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방법으로 분석된다. 또한 6,70년대에 유행하던 사운드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의 트렌드를 잘 이해하고 후배 가수들과의 공동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지역 | 남미  
국가 | 브라질  
활동 시기 | 1956 ~ 1994



Antonio Carlos Jobim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Stone Flower	앨범	1971	196
Billboard 200	Wave	앨범	1968	114
Billboard 200	Francis Albert Sinatra & Antonio Carlos Jobim	앨범	1967	19
Grammy	The Girl From Ipanema	앨범	1965	Record of the year

### 아티스트 소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은 세르지우 멘데스와 함께 가장 유명한 브라질 출신의 음악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보사노바는 물론이고 재즈와 팝을 넘나드는 수많은 곡을 작곡하였는데 특히 'Garota de Ipanema(The Girl from Ipanema)'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녹음된 곡 중 하나로 1965년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상(Record of the Year)을 수상한 앨범이기도 하다. 1964년, 아스트루드 질베르토(Astrud Gilberto)와 조앙 질베르토(Joao Gilberto), 스탠 게츠(Stan Getz)가 함께 발매한 앨범에 수록된 위의 곡은 빌보드 핫 100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이지 리스닝(Easy Listening) 차트에서는 2주 만에 정상을 차지한다. 영국에서도 역시 29위를 차지하면서 매우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고 비틀즈의 'Yesterday'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버전이 있는 곡으로 기록되었다. 세르지우 멘데스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과 같이, 보사노바를 탄생시키고 전

# 03

## Chapter



세계로 보급시킨 이들은 후대 브라질 음악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브라질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성공 배경에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들 수 있다. 일례로 1967년,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와 함께 발표한 [Francis Albert Sinatra & Antonio Carlos Jobim]은 빌보드 핫 200에서 19위까지 올라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1981년에도 유명한 재즈 싱어인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와 앨범을 발표하면서 인기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0년대 세계적인 보사노바의 붐을 타고 세르지우 멘데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출신의 음악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며 브라질에서 탄생한 20세기의 새로운 음악 장르인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보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샤키라

지역 | 남미

국가 | 브라질

활동 시기 | 1990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Donde Estan Los Ladrones?	앨범	1998	131
Billboard 200	MTV Unplugged	앨범	2000	124
Billboard 200	Laundry Service	앨범	2001	3
Billboard Hot 100	Whenever, Wherever	싱글	2001	6
Billboard 200	Grandes Exitos	앨범	2002	80
Billboard 200	Laundry Service : Washed And Dried	앨범	2002	112
Billboard Hot 100	Objection (Tango)	싱글	2002	55
Billboard Hot 100	Underneath Your Clothes	싱글	2002	9
Billboard 200	Live & Off The Record	앨범	2004	45
Billboard 200	Fijacion Oral Vol. 1	앨범	2005	4
Billboard 200	Oral Fixation Vol. 2	앨범	2005	5
Billboard Hot 100	Don't Bother	싱글	2005	42
Billboard Hot 100	La Tortura	싱글	2005	23
Billboard Hot 100	La Tortura	싱글	2005	23
Billboard Hot 100	Hips Don't Lie	싱글	2006	1
Billboard 200	She Wolf	앨범	2009	15
Billboard Hot 100	Give It Up To Me	싱글	2009	29
Billboard Hot 100	She Wolf	싱글	2009	11
Billboard Hot 100	Gypsy	싱글	2010	65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Loca	싱글	2010	32
Billboard Hot 100	Loca	싱글	2010	98
Billboard Hot 100	Waka Waka (This Time For Africa)	싱글	2010	38
Billboard 200	Sale El Sol	앨범	2010	7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샤키라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이후 가장 성공한 라틴계 여가수로 알려져 있다. 1995년 콜롬비아에서 발매한 데뷔 음반을 통해 남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 발매한 두 번째 앨범 [Donde Estan los Ladrones]는 전 세계적으로 7백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 곧 샤키라는 영어권을 겨냥해 세 번째 앨범인 [Laundry Service]를 발매하여 총 1,500만장 이상을 판매했고 첫 영어 싱글 'Whenever, Whenever'은 200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발매된 네 번째, 다섯 번째 앨범은 21세기에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 대열에 올라서게 된다. 2009년 발매된 여섯 번째 앨범은 2백만 장이 팔렸고 2010년의 일곱 번째 앨범도 4백만 장 이상을 판매되었다. 또한 2010년 월드컵 앨범에 수록된 그녀의 곡 'Waka Waka(This Time for Africa)'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월드컵 송으로 기록되었다. 이 곡의 영어 버전은 유튜브에서 5억 뷰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샤키라는 남미 본토에서 성장한 여가수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소속사인 소니 뮤직에서 매우 전략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 성공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샤키라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게 된 첫 정규앨범과 두 번째 정규앨범을 위해 소니 뮤직은 영미 팝 가수인 엘라니스 모리셋(Alanis Morissette)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라틴계 여가수가 가진 이미지와 북미권 여가수가 가진 이미지를 배합하여 샤키라를 탄생시켰다.

또한 북미권을 겨냥해 발매된 세 번째 앨범을 위해 샤키라는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으며 지금까지 계속 밝은 머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내의 히스패닉만을 타겟으로 삼지 않고 팝 시장의 전체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겠다는 소속사의 전략이었으며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게다가 이후 발매되는 싱글과 앨범은 모두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개 언어로 동시에 발매되어 소비층을 확실히 넓혀 현재까지도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리키 마틴과 마찬가지로, 라틴계의 음악적 유산을 최대한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월드컵 앨범에 적극적인 참여 및 프로모션을 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거대한 팬 층을 확보하게 된다.

# 03 Chapter



## 대디 양키

지역 | 남미  
국가 | 푸에르토 리코  
활동 시기 | 1992 ~ 현재



Daddy Yankee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Barrio Fino	앨범	2004	26
Billboard 200	Ahora Le Toca Al Cangri	앨범	2005	104
Billboard 200	Barrio Fino: En Directo	앨범	2005	24
Billboard 200	Los Homerun-es	앨범	2005	158
Billboard 200	El Cartel: The Big Boss	앨범	2007	9
Billboard 200	Talento De Barrio (Soundtrack)	앨범	2008	13
Billboard 200	Mundial	앨범	2010	29
Billboard 200	Prestige	앨범	2012	39
Billboard Hot 100	Gasolina	싱글	2004	32
Billboard Hot 100	Like You	싱글	2005	78
Billboard Hot 100	Rompe	싱글	2005	24
Billboard Hot 100	Impacto	싱글	2007	56

### 아티스트 소개

대디 양키는 푸에르토 리코의 뮤지션으로 2004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레게톤(Raeggaeton)'이라는 음악 장르를 정착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레게톤은 레게음악과 힙합풍의 스페인어 랩이 조합된 음악으로 푸에르토 리코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남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파티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Gasolina'라는 곡을 통해 레게톤을 세상에 알린 대디 양키는 이 새



# 03

## Chapter



로운 스타일의 히스패닉 음악으로 1000만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하였다. 2004년에 발매된 그의 두 번째 앨범 [Barrio Fino]는 자신이 직접 설립한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으며 미국에서만 50만장을 판매하였는데, 철저히 영어권 시장을 겨냥한 레게톤 음악의 소개를 위해 만들어진 앨범이었다. 2006년 4월, 대디 양키는 타임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00만 달러에 미국의 인터스콧 레코드(Interscope Records)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미국에서 발매된 [El Cartel: The Big Boss]에는 윌아이엠(Will. I. Am)과 넬리(Nelly) 등 쟁쟁한 힙합 뮤지션이 함께 참여하면서 빌보드 차트에서 9위까지 진입한다. 2010년에 발매한 가장 최근 앨범인 [Prestige]는 빌보드 200에서 39위에 랭크되었고 빌보드 랩 앨범 차트에서는 5위에까지 오른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대디 양키의 가장 큰 성공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데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 출신으로 북미권에서 성공을 거둔(대부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한 1.5세대거나 2,3세대이다) 히스패닉 뮤지션들은 이미 많았는데, 이들이 힙합씬에서 새로운 사운드를 개척하며 미국 내에서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였다.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던 히스패닉 힙합 시장을 중심으로 대디 양키의 레게톤이 유행하게 되고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즉, 대디 양키가 북미권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 내에서 이미 성공을 이룬 히스패닉 힙합 뮤지션들의 지원이 있었고 히스패닉 힙합의 지평을 넓히려던 새로운 레이블이 대디 양키의 앨범을 제작함으로써 라틴 시장을 벗어난 대중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후아네스

지역 | 남미  
 국가 | 콜롬비아  
 활동 시기 | 1988 ~ 현재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Un Dia Normal	앨범	2002	110
Billboard 200	Mi Sangre	앨범	2004	33
Billboard Hot 100	La Camisa Negra	싱글	2005	89
Billboard Hot 100	Lo Que Me Gusta A Mi	싱글	2006	94
Billboard 200	La Vida... Es Un Ratico	앨범	2007	13
Billboard Hot 100	Me Enamora	싱글	2007	69
Billboard 200	P.A.R.C.E.	앨범	2010	165
Billboard 200	tr3s Presents: Juanes MTV Unplugged	앨범	2012	52

### 아티스트 소개

후아네스는 콜롬비아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다. 록을 바탕으로 팝과 라틴 사운드가 가미된 음악을 연주한다. 90년대 콜롬비아에서 메탈 밴드로 활동하던 중 한계를 느껴 밴드를 해체하고 2000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저명한 음악가인 구스타보 산타올라야(Gustavo Santaolalla)가 프로듀스한 [Fijate Bien]을 발매하면서 라틴 그래미의 세 개 부문을 수상한다. 이후 동일한 프로듀서와 함께 2002년에 발매한 두 번째 앨범이 남미와 스페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빌보드 탑 라틴 앨범(Top Latin Album) 차트에서는 92주 동안 탑 텐 안에, 2년간 일반 차트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이후 발매한 싱글인 'A dios le pido' 역시 12개국에서 1위에 랭크되었

# 03

## Chapter



고 47주 연속 빌보드 핫 라틴 차트(Hot Latin Chart)에 올라 있었다. 지금까지 약 1,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개의 라틴 그라미 어워즈(Latin Grammy Awards), 2개의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 9개의 엠티비 어워즈(MTV Awards), 2개의 NRJ뮤직 어워즈(NRJ Music Awards), 등 수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에 발매한 MTV 언플러그드 앨범은 총 1백만 장이 판매되었다.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후아네스의 성공에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첫 번째, 두 번째 앨범을 프로듀스한 구스타보 산타올라야인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한 음악가로서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Brokeback Mountain)과 바벨(Babel)의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여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프로듀싱한 후아네스 앨범은 발매되자마자 큰 이슈가 되었고 후아네스를 스타덤에 올려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후아네스의 매니저는 콜롬비아 출신의 페르난 마르티네즈(Fernan Martinez)로, 스페인 출신의 유명 가수 엔리케 이글레시아(Enrique Iglesias)와 그의 아들 훌리오 이글레시아(Julio Iglesias)의 매니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니저 밑에서 철저한 상업적 성공을 위해 활동했고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를 기획하여 공연하기도 했다. 이후 후아네스는 상업적으로 컨트롤된 자신의 경력을 바꾸기 위해 매니저였던 페르난 마르티네즈와 결별하였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03 Chapter



## 리키 마틴

지역 | 남미  
국가 | 푸에르토 리코  
활동 시기 | 1984 ~ 현재



Ricky Martin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영미권 내 주요 성과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Hot 100	Maria	싱글	1996	88
Billboard 200	Vuelve	앨범	1998	40
Billboard Hot 100	The Cup Of Life (The Official Song Of The World Cup, France 98)	싱글	1998	45
Billboard Hot 100	The Cup Of Life (The Official Song Of The World Cup, France '98)	싱글	1998	77
Billboard 200	Ricky Martin	앨범	1999	1
Billboard Hot 100	Livin La Vida Loca	싱글	1999	1
Billboard Hot 100	She s All I Ever Had	싱글	1999	2
Billboard Hot 100	Shake Your Bon-Bon	싱글	1999	22
Billboard 200	Sound Loaded	앨범	2000	4
Billboard Hot 100	She Bangs	싱글	2000	12
Billboard Hot 100	Private Emotion	싱글	2000	67
Billboard Hot 100	Nobody Wants To Be Lonely	싱글	2001	13
Billboard 200	Historia	앨범	2001	83
Billboard Hot 100	Loaded	싱글	2001	97

# 03 Chapter



성과 기준	발매곡/음반	종류	발매연도	성과
Billboard 200	Almas Del Silencio	앨범	2003	12
Billboard Hot 100	Tal Vez	싱글	2003	74
Billboard 200	Life	앨범	2005	6
Billboard Hot 100	I Don't Care	싱글	2005	65
Billboard 200	Ricky Martin: MTV Unplugged	앨범	2006	38
Billboard Hot 100	Tu Recuerdo	싱글	2006	96
Billboard Hot 100	Lo Mejor De Mi Vida Eres Tu/ The Best Thing About Me Is You	싱글	2010	74
Billboard 200	Musica + Alma + Sexo	앨범	2011	3

I.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미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

## 아티스트 소개

리키 마틴은 푸에르토 리코 출신으로 가수 겸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리키 마틴은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부른 노래가 큰 히트를 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실은 이전부터 이미 남미에서는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연예인이었다. 리키 마틴은 1991년부터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유명 아이돌그룹(당시에는 보이밴드라고 불리던) 메누도(Menudo)의 멤버로 활동하며 남미에서 유명세를 쌓았는데, 5년 뒤 메누도가 해체되면서 리키 마틴은 스페인어로 된 첫 앨범을 발매하였고 멕시코의 드라마와 미국의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넓혔다.

이후 몇 장의 스페인어 앨범을 발매하였고 1999년에 첫 영어 앨범인 [Ricky Martin]을 발매하는데 그의 대표곡인 'Livin' la vida loca'가 수록된 본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2,200만장이 팔리며 그를 스타대열에 올려놓았다. 총 7,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하였고 95개의 플래티넘 앨범을 기록하고 있다. 총 6회에 걸쳐 각종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1위에 오른 싱글 역시 11곡에 이른다. 2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erican Music Awards), 6개의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 8개의 월드뮤직 어워즈(World Music Awards), 10개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Billboard Music Awards), 8개의 엠티비 뮤직 어워즈(MTV Music Awards) 수상경력이 있으며 60개가 넘는 국가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 03

## Chapter



### 영미권에서의 성공 배경

남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출신의 리키 마틴은 솔로 데뷔 이후에도 음악 이외의 연예 활동을 병행하면서 인지도를 넓혀나갔다. 멕시코와 미국의 드라마에 출연하였고 브로드웨이에도 얼굴을 내밀면서 전방위적인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보였다. 다만 그의 음악은 남미 이외의 국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그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FIFA와의 계약을 통해 1998년에 있었던 프랑스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공연한 'La copa de la vida'를 통해서이다. "라틴 팝의 세계적 순간(Global Moment for Latin Pop)"이라고 불리던 이 공연은 187개국에서 10억이 넘는 인구에 중계되었으며 이 공연 한 번으로 세계적 명성을 거머쥐게 된다. 이를 계기로 1999년부터 리키 마틴은 본격적인 영어 앨범을 제작하여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룬다.

1. 개요

II. 영미권 음악시장 현황

III. 비영어권 뮤지션의 영미권 음악시장 진출 사례 **남미권 뮤지션**